

글로벌 금융위기와 은행산업의 경영전략: 평가와 시사점*

박정수** · 서정호*** · 함준호****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급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은행산업의 취약성에 대한 평가와, 8,404개 국제은행 패널자료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은행 경영전략의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000년 이후 국내 은행경영의 전략적 특성은, 대출자산의 빠른 확대를 통한 이자이익 중심의 성장, 상품별·시점별 운용전략의 은행 간 쏠림현상, 시장성 자금 및 도매조달의 확대를 통한 경기순응적 레버리지 행태 등으로 요약되며, 이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시 국내 은행산업이 취약성을 드러내게 된 배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제 은행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국내은행의 대형화 및 겸업화에 대한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대형화는 수익성을 높이며 수익의 변동성을 감소시키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대형화는 오히려 수익성을 저하시키며 도산위험도 높이는 규모의 비선형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내 은행산업의 여건과 거시경제적 환경에 따라 최적의 은행규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둘째, 자산 대비 대출비중의 효과를 통제 한 후, 대출증가율의 상승은 수익성과 안정성에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며, 이러한 효과는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급속한 대출확대전략은 중장기적인 수익창출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은행들의 쏠림현상과 결합될 때 그 부정적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국내 실물경제의 성장속도와 규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자산확대를 통한 자생적 성장보다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셋째,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확대는 수익성과 더불어 수익의 변동성 및 도산위험도 함께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은행별로 다양한 재무적·비재무적 특성과 위험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익다각화의 수준과 대상업무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10년 5월 14일 한국경제연구학회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되었으며, 본 세미나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상명대학교의 정지만 교수님과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공동저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화: (02) 705-8697, E-mail: jspark@sogang.ac.kr(동 저자는 본 연구를 2008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 200810006.01)으로 수행하였음).

*** 공동저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02) 3705-6348, E-mail: jhsuh@kif.re.kr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전화: (02) 2123-4210, E-mail: hahm@yonsei.ac.kr

논문투고일: 2010. 5. 31 수정일: 2010. 8. 9 게재확정일: 2010. 10. 21

핵심주제어: 은행 경영전략, 이자 및 비이자 이익, 대형화, 겸업화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G1, G2, N2

I. 서 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과 금융산업, 특히 은행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금융산업의 이윤추구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업적 관점에서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오던 탈규제(deregulation)의 흐름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금융의 공공성과 외부성(externality)이 강조되고 공적 안전망의 제공에 따른 유인 왜곡과 사회적 비용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재규제(reregulation)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금융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실물경제에 대한 본연의 중개기능이 새삼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각종 영업행위에 대해 규제 비용을 부과하며, 시스템 위험의 방지를 위해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제한하려는 다양한 규제방안이 현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상업은행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위험을 흡수·분산하며 위기시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충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본력과 유동성 등 건전성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감독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나, 이러한 변화는 금융서비스의 공급비용을 높이고, 겸업화를 제한하여 제한된 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동시에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은행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대형화와 겸업화의 기틀은 마련하였으나, 경영의 효율화와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의 창출, 선제적인 위험관리 역량 등 대내외 경쟁기반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합병에 따른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은 제고되었으나, 그룹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시너지와 범위의 경제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그 동안 국내은행들이 추구해 왔던 외형성장 위주의 전략들, 예컨대 시장성 자금과 도매자금을 이용한 자산확대 경쟁 등은 더 이상 추구하기 어려운 전망이며, 저원가

성 자금조달 능력과 실물증개 및 위험관리 역량, 겸업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통한 수익구조의 다각화 등이 보다 핵심적인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돌이켜보면 거시경제적으로도 국내 은행산업은 금융저축의 결집과 투자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여 왔지만, 경제구조가 점차 복잡화 고도화되면서 핵심 성장요인으로 대두되게 된 생산성의 향상에는 별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¹⁾ 따라서 이번 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규제개혁 논의를 신흥시장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환경을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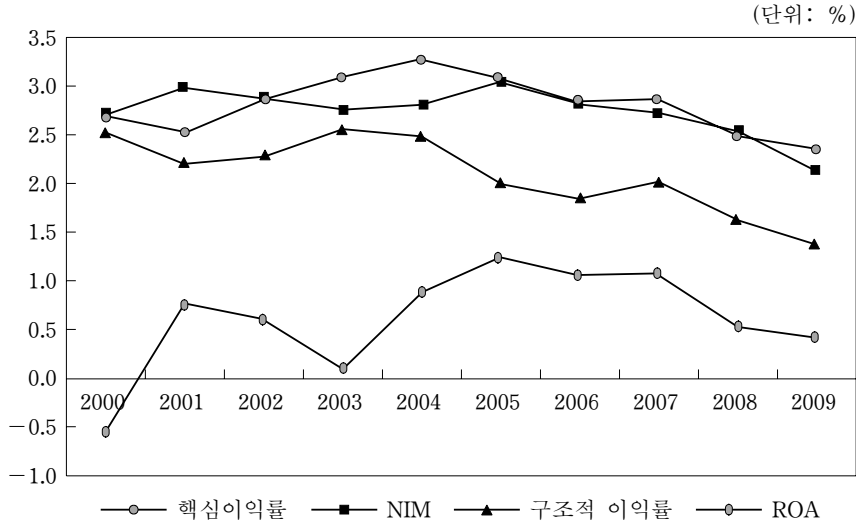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은행산업의 취약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은행 경영전략을 평가하고, 국제은행 패널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위기 이후 새로운 경영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절에서는 국내은행의 경영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기존의 국내은행의 성장전략과 수익모형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제III절에서는 전 세계 8,404개 은행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대형화 전략, 대출확대 전략, 비은행 업무확대전략 등 다양한 경영전략이 은행의 수익성, 안정성, 도산위험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IV절에서는 제II절 및 제III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위기 이후의 국내은행 경영환경을 조망하여 보고, 이에 대응한 경영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V절에서는 본고의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II.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 및 수익모형 평가

1. 국내은행의 경영현황

외환위기 이후 2005년까지 국내 일반은행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회복기조를 유지했으나, 이후에는 영업이익의 성장속도가 구조적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

1) Ahn, Hahm, and Kim(2008)은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미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의 비금융기업에 대한 여신 제공이 기업의 고정자본 형성에는 유의하게 기여하였으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와는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주: 1) 핵심이익률=(이자이익+수수료이익)/총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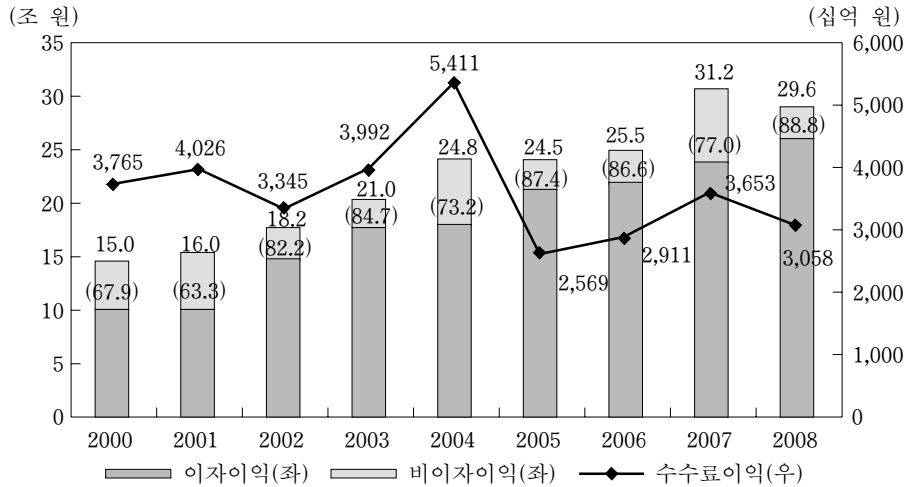
2) 구조적 이익률=(이자이익+수수료이익+신탁이익-판매비)/총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1〉 국내 일반은행의 수익성 지표 추이

이고 있으며, 순이익규모도 2007년을 정점으로(10.2조 원) 2008년(6.1조 원)과 2009년(5조 원) 연이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 ROA)과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 NIM)이 2005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은행의 안정적 수익기반인 이자수익자산(대출자산 및 채권)의 수익창출 능력인 순이자마진이 금리상승기인 2005~2007년 중에도 하락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은행의 자산이 부채에 비해 금리재설정 주기(repricing interval)가 짧기 때문에 금리상승기에 수익성이 개선되는 패턴을 보여야 하나, 시장경쟁의 심화로 예대금리차가 크게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그 동안 국내은행은 수익구조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선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비율이 2001년 63:37에서 2008년에 89:11로 이자이익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은행들이 방카슈랑스, 투자상품 판매 등을 통한 수익원 다변화 노력을 꾸준히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산이 더 급속하게 늘어나 이자이익에 대한 편중도가 오히려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수수료이익도 2004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이자이익에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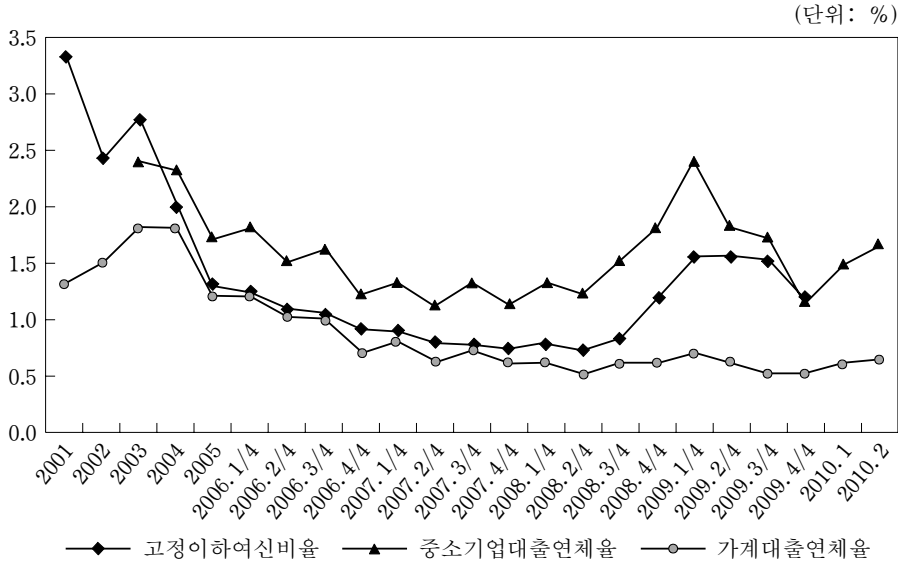
주: () 안은 이자이익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2〉 국내 일반은행의 이익구조 변화

까지 함께 고려한 핵심이익률 및 구조적 이익률 또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핵심이익률과 구조적 이익률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수익성 악화가 관관비 등 비용상승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며, 투자자 보호강화, 증권사의 CMA 영업확대 및 소액결제서비스 시행 등 타 권역과의 경쟁심화로 은행의 전통적 수익기반이 상당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업은행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은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2009년 말 현재 13개 국내 일반은행의 은행계정 총자산 중 총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5%에 이르고, 최근 은행 순이익 변동의 대부분을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만 보아도 상업은행에 있어 건전성 또는 신용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2008년 3/4분기부터 다시 악화되었고, 2009년 하반기 이후에는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참조). 그러나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2010년 6월 종료되고, 향후 건설·조선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면서 기업여신의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²⁾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가계여신의 건

2) 2009년 중의 연체율 하락을 은행여신 건전성의 개선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3> 국내 일반은행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추이

전성에 미친 영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말 현재 신용카드채권의 연체율도 1.4%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일반은행의 자금조달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부채성 조달³⁾ 중 원화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말 74.5%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59.2%까지 하락하였다가, Lehman 사태 이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그 동안 양도성예금증서(CD) 및 금융채 등 시장성 자금의 조달비중이 상당히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금 중에서 개인예수금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부터 일시에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도매조달(wholesale funding)의 행태가 은행권에 확산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금들은 금융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는 용이한 자금조달수단이 되지만,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에는 급격히 이탈되어 은행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증가율이나 대손상각비율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은행의 대손상각비율(charge-off rate: 총여신 대비 대손상각액)은 2008년 0.1%에서 2009년에는 0.32%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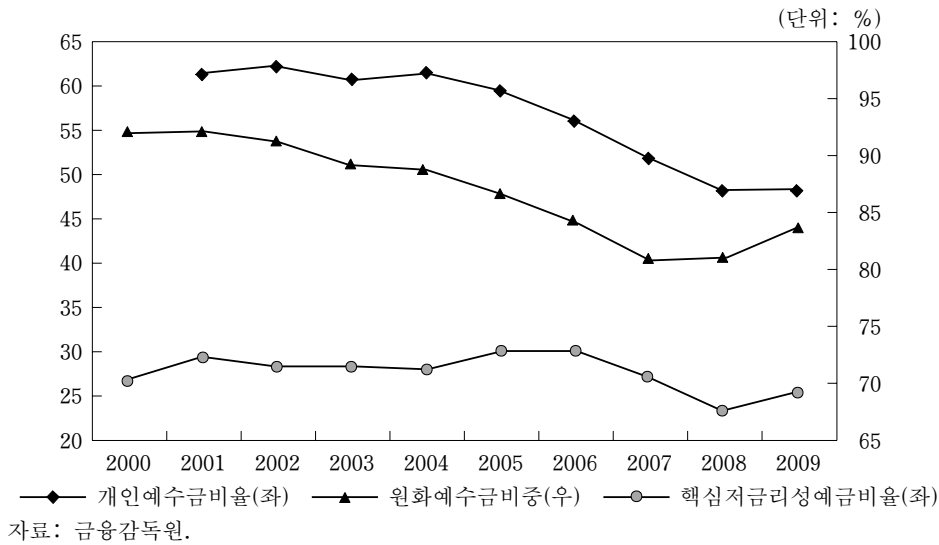
3) 예수금, 차입금 및 금융채 포함.

〈표 1〉 국내 일반은행의 조달구조 추이

(단위: 조 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금조달총액	432.5	476.0	554.4	606.9	615.5	659.6	731.5	795.5	926.4	933.4
원화에수금	322.4 (74.5)	360.6 (75.8)	404.2 (72.9)	429.1 (70.7)	422.3 (68.6)	442.3 (67.1)	466.6 (63.8)	470.6 (59.2)	553.4 (59.7)	609.4 (65.3)
CD	11.7 (2.7)	13.2 (2.8)	21.5 (3.9)	30.3 (5.0)	34.2 (5.6)	47.9 (7.3)	65.4 (8.9)	88.0 (11.1)	93.4 (10.1)	84.2 (9.0)
은행채	24.7 (5.7)	27.4 (5.8)	51.0 (9.2)	64.2 (10.6)	81.9 (13.3)	84.1 (12.7)	106.6 (14.6)	135.6 (17.0)	153.0 (16.5)	129.0 (13.8)
기타	73.7 (17.0)	74.8 (15.7)	77.8 (14.0)	83.3 (13.7)	77.1 (12.5)	85.4 (12.9)	92.9 (12.7)	101.3 (12.7)	126.5 (13.7)	110.9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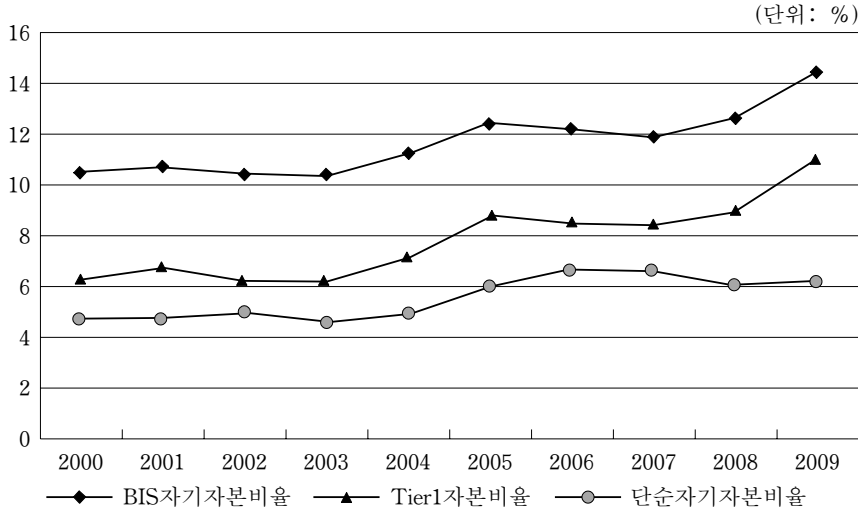
주: () 안은 자금조달총액에 대한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그림 4〉 국내 일반은행의 조달구조 추이

는 경향이 있다(Shin, 2009; Liu *et al.*, 2009). 서정호 등(2010)은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도매조달의 비중과 은행위험이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국내은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여주었다.

국내 일반은행의 자금조달구조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2006년 이후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핵심저금리성예금의 이탈을 들 수 있다. 핵심저금리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5〉 국내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추이

성예금은 조달비용이 매우 낮은 자금이어서 수익성이 높고, 대부분 급여 공과금 등 가계의 주거채통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고객유지율(retention rate)이 높으며, 일정 수준의 자금이 항상 계좌에 유지되는 핵심예수금(core deposits)의 일부이므로 은행영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증권회사 CMA의 확대 등으로 저원가성 자금조달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은행산업에 또 다른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 유동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은행은 안정적인 수신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은행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용스프레드를 확대시킨다면 자산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

한편,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08년 하반기 Lehman 사태 이후 은행들의 증자노력, 정부의 자본확충 지원, 이익유보비율의 증대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 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은 14.57%를 시현하였고, 핵심기본자본(Core Tier I)비율도 10.98%까지 상승하였다.⁵⁾

4) 구분성(2008b)은 은행채와 국고채 간 스프레드가 확대될 경우 은행이 저축성 수신을 확대할 동기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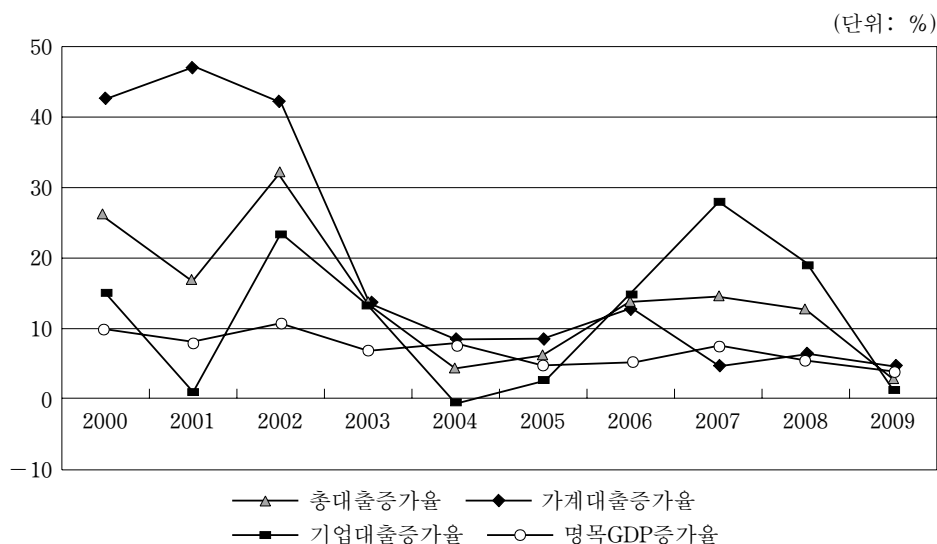
5) 핵심기본자본(Core Tier I)비율=(기본자본-신종자본증권)/위험가중자산.

2. 성장전략 평가

(1)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성장추구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일반은행의 대출자산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하면 연 12.6%에 달한다.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명목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평균 6.5%였음을 감안하면, GDP성장률의 2배 가까운 대출성장률을 시현한 셈이며, 대부분의 기간에서 GDP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다(〈그림 6〉 참조).

특히, 2000~2002년 중 가계대출성장률이 매년 전년 대비 40%를 상회하였고, 2006~2008년 중에는 기업대출성장률이 평균 20% 수준을 보이는 등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형태의 대출이 집중화되는 경향도 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시장에 주력해 온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06년부터 중소기업 대출위주로 자산확대 경쟁을 벌였고, 경기불황 기조에 접어든 2007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대출증가율은 다소 하락하고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반은행 총자산 중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2000년 74%→2009년 84%)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6〉 국내 일반은행의 대출증가율 추이

국내은행의 대형화 전략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는 대형화를 통해 충분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었는지, 금융중개기능은 향상되었는지, 급격한 성장이 가져오는 효율성의 악화는 없었는지, 합병과 자생적 성장(internal growth)전략 간에 대형화에 따른 효율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을 다각도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정형권·강중구(2008)는 1994~2005년 중 22개 국내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합병 및 지주회사를 통한 통합이 은행의 비용 및 이익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합병이 은행의 비용효율성을 개선시키지는 못했으나 이익효율성에는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고, 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한 상황에서 시장집중도는 이익효율성을 체증적으로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 간 합병시 비용효율성 제고 여부, 금융중개기능 강화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상기한 <그림 1>에서 구조적 이익률과 핵심이익률의 차이는 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의해 설명되는데, 2004년 이후 그 간격이 좁혀지지 못하는 점을 보더라도, 비용효율성이 충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병윤(2009)은 은행 대형화가 1999~2007년 기간 중 기업대출자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는데, 은행 대형화가 수익성, 재무건전성 및 금융비용 부담능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중소기업 대출확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2) 은행 간 성장전략의 유사성

국내 일반은행의 대출자산 운용패턴을 살펴보면 상품별·시점별 성장전략의 유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컨대,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64~66%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표 2> 참조), 시점별로도 대부분의 은행이 동일한 시장에 동시에 뛰어드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림 7>은 국내 4대 은행(KB, 우리, 신한,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를 나타내는데, 2002년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최고점을 형성한 이후 하향 안정화되는 등 4개 은행의 시점별 상품전략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중구(2010)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은행대출의 쏠림정도(herding intensity)를 나타내는 쏠림지수(herding index)를 분기별로 추정하였는데, 2002년 3분기~2003년 3분기 중에는 가계대출시장에서 쏠림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는 2004년 1분기~2005년 3분기 중

〈표 2〉 국내 일반은행의 자산구조 변화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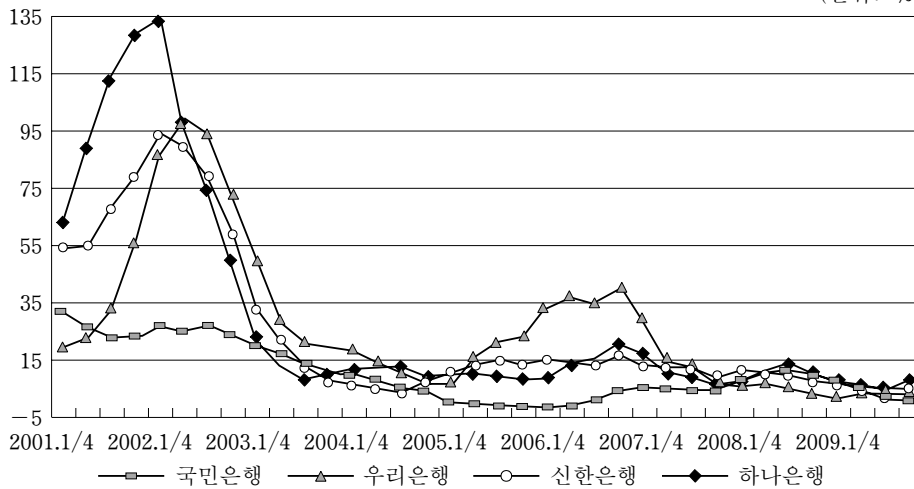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자산	516.6 (100.0)	558.1 (100.0)	636.5 (100.0)	697.3 (100.0)	718.5 (100.0)	774.8 (100.0)	873.8 (100.0)	965.8 (100.0)	1,178.1 (100.0)	1,126.2 (100.0)
유가증권	130.2 (25.2)	139.1 (24.9)	132.3 (20.8)	132.8 (19.0)	131.0 (18.2)	151.6 (19.6)	151.8 (17.4)	150.6 (15.6)	170.4 (14.5)	184.7 (16.4)
총대출 ¹⁾	231.9 (44.9)	270.7 (48.5)	357.4 (56.2)	405.1 (58.1)	421.8 (58.7)	446.8 (57.7)	508.6 (58.2)	583.0 (60.4)	657.5 (55.8)	674.3 (59.9)
가계대출	90.3 (17.5)	133.0 (23.8)	189.2 (29.7)	214.8 (30.8)	232.2 (32.3)	251.7 (32.5)	284.0 (32.5)	296.7 (30.7)	315.3 (26.8)	329.0 (29.2)
기업대출	131.0 (25.4)	132.2 (23.7)	162.8 (25.6)	184.8 (26.5)	183.7 (25.6)	188.2 (24.3)	216.0 (24.7)	275.8 (28.6)	328.7 (27.9)	331.3 (29.4)
주택담보 대출	-	-	-	-	-	165.9 (21.4)	187.2 (21.4)	189.7 (19.6)	201.8 (17.1)	220.3 (19.6)
중소기업 대출	-	-	-	-	-	162.9 (21.0)	193.7 (22.2)	244.3 (25.3)	275.4 (23.4)	283.0 (25.1)

주: 1) 원화대출기준.

2) () 안은 총자산에 대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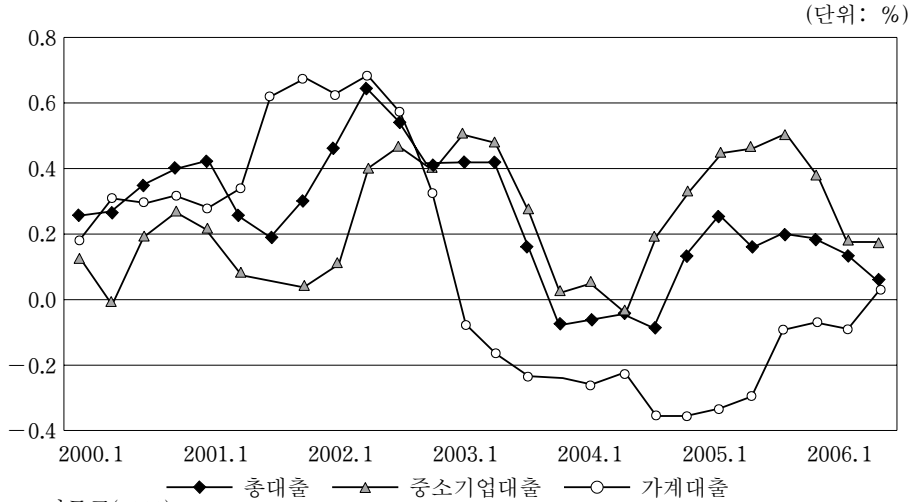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 4대 은행의 가계대출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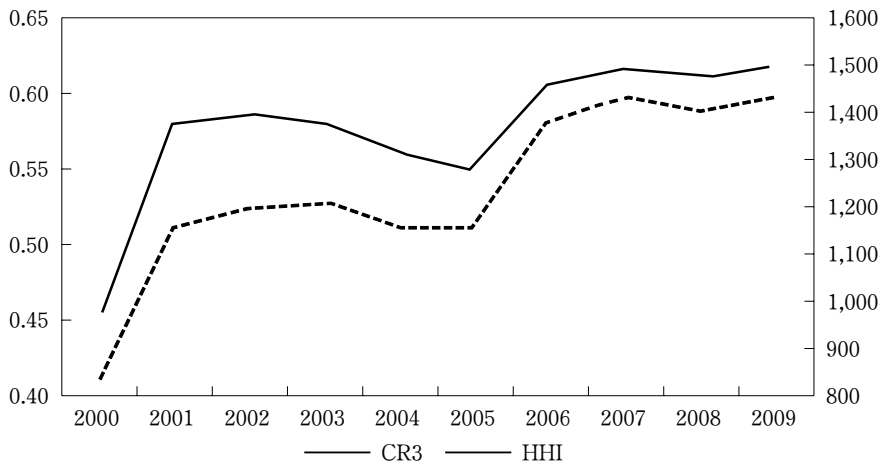
〈그림 8〉 전체 은행의 평균 쏠림지수 변동추이

에 높은 수준의 쏠림현상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그림 8〉 참조).⁶⁾ 쏠림현상이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은행 간 유사한 성장전략은 특정 시장에서 과다한 시장점유율 경쟁을 유발하여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자금흐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심각한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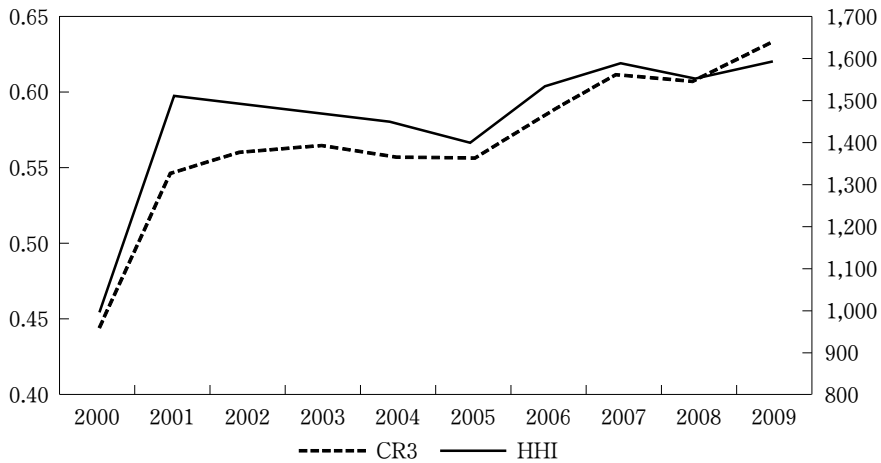
한편, CR3(three-firm concentration ratio) 및 HHI(Hirfindahl-Hirschman Index)를 통해 2000년 이후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9〉 참조), 총자산기준으로는 CR3와 HHI 모두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가 2007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예수금기준 시장집중도는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집중도 상승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저하로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감소되고 시스템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과연 이러한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상승이 시장경쟁도의

6) 강종구(2010)는 특정 은행의 대출증가율이 전기 전체 은행의 평균 대출증가율과 유사한 정도로 높다면, 해당 은행이 다른 은행들의 대출영업 행태를 추종한다고 보아, 시차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쏠림정도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특정 시점의 쏠림지수가 동 시점을 포함한 향후 8분기 동안의 평균적인 쏠림정도이므로, 해당 시점에서 4분기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전 4분기 및 후 4분기의 평균 쏠림정도를 나타낸다고 해석하였다.

a. 자산기준



b. 원화예수금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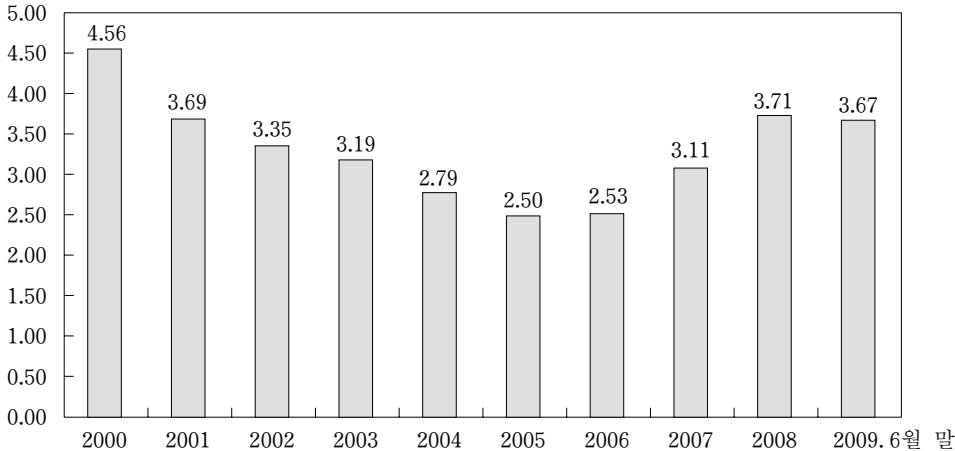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9> 국내 일반은행의 시장집중도

하락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만약 국내은행들이 시장에서 경쟁자 간 시장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낮고, 자산증대의 동기가 강하며, 상품의 차별화가 어렵다면, 시장집중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 간 경쟁도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김현욱(2003)은 1996년 1월부터 2002년 12월 기간 중 Bresnahan-Lau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수준을 추정하였는데, 5개 은행퇴출(1998. 6) 및 국민·주택은행 합병(2001. 11) 이후 시장집중도는 상승하였지만 은행산업의 경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10〉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자산비중 추이

쟁도는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김현옥은 독과점적 폐해 우려와는 달리 국내 은행산업에 시장원리가 도입되면서 국내은행들이 보다 경쟁적으로 영업해 왔다고 해석하였다. 최호상(2007)은 1994~2005년 기간 중 국내 은행산업의 집중도 상승과 그에 따른 경쟁도 변화를 Panzar-Ross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도는 국내은행이 집중화·대형화된 이후 약화되었으나 집중도 심화에 따른 경쟁 약화 등의 폐해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 재편과정에서 위축되었다가 2005년 이후 중국, 베트남 등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자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경쟁에 치중하는 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일반은행의 국내시장에 대한 편중현상은 2000년대 초반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본성(2008a) 및 서병호(2009)는 국내경제의 저성장 국면 돌입과 국내 금융시장의 포화상태를 극복하고, 수익기반의 다각화 및 위험자산의 변동성 축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은행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서병호(2009)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연구를 통한 특화된 전략시장 개발, 지역 전문인력 육성, 현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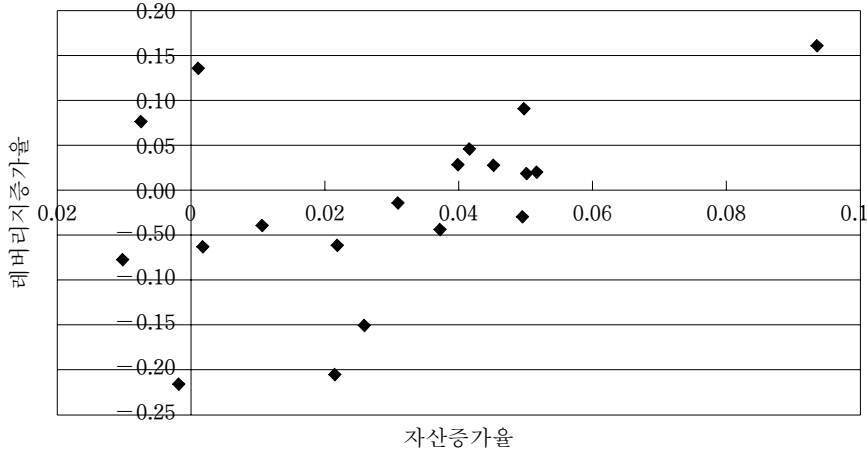
진출방식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경기순응적 레버리지 행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군집행동과 경기순응적(procyclical) 여신행태가 금융 불안정성의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여신행태는 BIS 자기자본 규제 등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지만, 금융의 증권화와 유동화에 의해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가 시가평가에 보다 민감해지는 경우, 금융회사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적극적인 위험추구전략에 의해 보다 심화될 수 있다. Adrian and Shin(2008)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투자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경기순응적 레버리지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함으로써 시장유동성 위험에 대거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Adrian and Shin(2008)이 보인 바와 같이 레버리지 행태의 경기순응성은 금융회사의 총자산증가율과 레버리지증가율의 상관관계에 의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레버리지 행태를 보이는 금융회사의 경우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총자산 증가시 부채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기자본 대비 총부채비율인 레버리지비율이 하락하게 되어 총자산증가율과 레버리지비율의 증가율은 음(-)의 상관성을 보인다. 그러나 경기순응적인 레버리지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러한 상관관계가 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김병덕·함준호(2009)에 따르면 시가평가에 민감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경우에도 경기순응적인 레버리지 행태가 관측된다. <그림 11>은 국내 일반은행의 경우 미국의 투자은행과 같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총자산증가율과 레버리지비율 증가율이 양(+)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44)를 보이며, 따라서 국내은행도 경기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부채자금조달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경기순응적 레버리지전략을 추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CD, 은행채 등 시장성 부채와 외화차입 등 도매자금에 의한 자금조달과 이를 통한 중소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자산확대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⁷⁾

7) 정형권(2009)은 우리나라의 실질 가계대출증가율이 실질 아파트가격지수증가율과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경기순응성이 존재하지만, 그 정도는 2002년 3분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의 도입 이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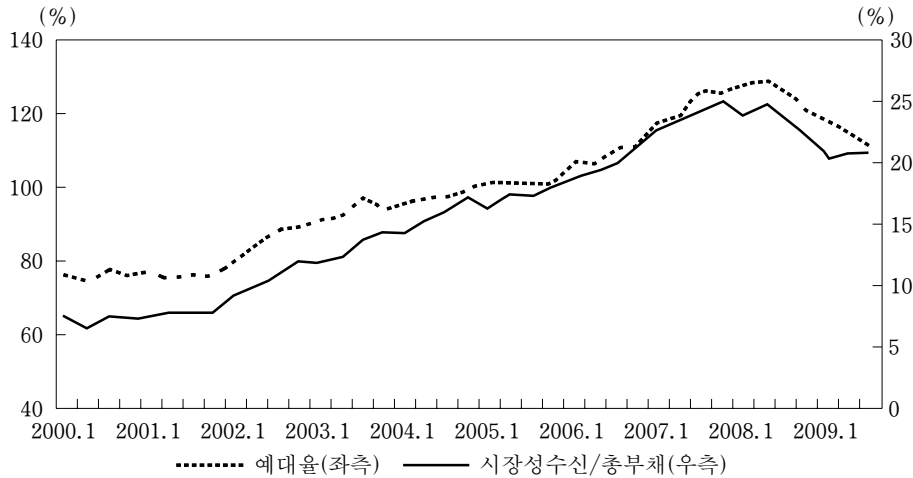


자료: 김병덕·함준호(2009).

〈그림 11〉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총자산증가율과 레버리지증가율

(4) 시장성 자금조달 확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은행부문의 자금조달에 있어 CD, 금융채와 같은 시장성 자금에 대한 의존도는 2002년 이후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이러한 자금이 대출에 사용됨으로써 예대율도 크게 높아졌다. 〈그림 12〉는 국내 일반은행의 시장성 자금조달비중과 예대율 추이를 보여준다. 물론 직접적인 유동성 위기는 외환부문에서 촉발되었지만, 이러한 높은 예대율과 시장유동성 위험에 대한 노출로 인해 국내 은행부문은 지난 2008년 말 서브프라임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채 등 시장성 부채의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였던 바 있다. 국내 은행부문이 이러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게 된 배경으로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국내 거시금융 구조의 변화와 은행의 자산대형화 경쟁을 들 수 있다. 즉,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로 가계자산 구조가 비은행, 투자상품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은행부문의 대형화 경쟁이 지속됨으로써 자산성장률의 유지를 위해 시장성 자금조달의 확대라는 부채구조의 왜곡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국내 은행부문이 시장유동성 위험과 가계 및 중소기업 부채 등 신용집중 위험에 노출되게 된 간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주: 시장성 수신비중은 (양도성 예금증서+금융채)/총부채 비율로 계산함.
 자료: 금융기관 경영분석; 금융감독원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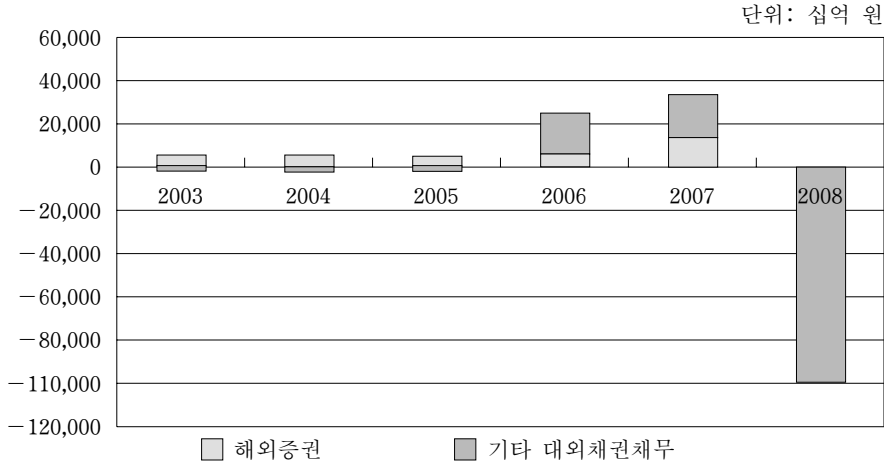
〈그림 12〉 국내 일반은행의 시장성 수신비중과 예대율 추이

(5) 외화유동성 위험의 상승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은행부문이 직면하였던 가장 심각한 위험은 역시 외화부문의 유동성 위험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3〉은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해외자금 조달규모를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6년과 2007년에 해외발행 외화금융채 등 해외증권과 외화비거주자 차입금, 해외 본지 점계정 등 기타 대외채무가 빠르게 늘어났으나, 2008년 들어 해외 금융채 발행이 중단되고 기타 대외채무가 대거 회수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기타 대외채무의 급격한 증감은 무위험 차익거래의 실현을 위한 채권투자 재원조달 등 외은지점의 해외자금조달이 단기자금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외화유동성 위험 노출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간 통화 불일치와 만기구조의 불일치에 따라 나타나는데, 통화 포지션에 대해서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모두 선물환과 현물환을 포함한 종합포지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⁸⁾ 그러나 만기구조에 대해서는 국내은행의 경우 만기불일치 비율 규제,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중장기 비율 규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은지

8) 동 규제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외화표시 현물환 및 선물환의 종합매입초과포지션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 중 더 큰 포지션을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그림 13〉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중 해외자금 조달규모

점의 경우에는 이러한 외화유동성 관련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⁹⁾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불일치가 2008년 이전 외은지점의 단기외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국내은행의 경우에도 조선사의 수출대금, 해외증권투자자금 등 환위험 헤지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외화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외화유동성 관련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외화유동성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2008년 말 국내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3. 수익구조 평가

상업은행의 비은행업무 확대 추세는 금융의 대형화·겸업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예대부문에서의 시장 포화 및 수익성 저하에 대응한 은행의 업무다각화 노력을 반영하며, 비단 국내은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1980년대 이후 지속된 규제완화 추세와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의 탈중개화는 은행의 전통적인 비교우위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9) 만기불일치 비율은 (외화자산-외화부채)/외화총자산으로 정의되며, 7일 이내 만기불일치 비율 0% 이상, 1개월 이내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이며 8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중장기비율은 1년 이상 중장기 외화조달/1년 이상 중장기 외화대출비율이며 현재 80% 이상으로 규제되고 있다.

〈표 3〉 국내은행의 수익구조 현황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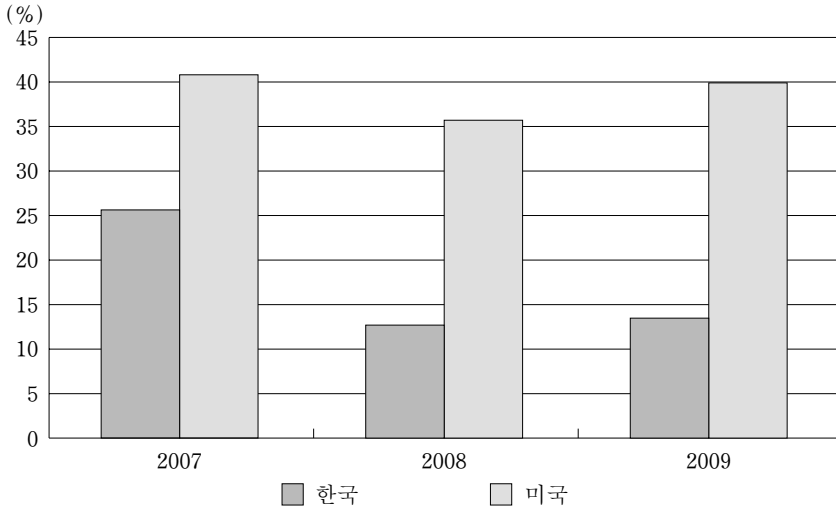
	2007	2008	2009	증 감	
				증감액	증감률
이자이익(A)	309,621	341,642	319,960	△21,682	△6.3
비이자이익(B)	105,158	49,291	49,041	△250	△0.5
수수료이익	45,487	40,050	36,742	△3,308	△8.3
유가증권 관련이익	62,527	7,226	32,168	24,942	345.2
외환거래이익	14,165	55,251	29,818	△25,433	△46.0
파생상품 관련이익	3,488	△30,220	△17,268	12,951	△42.9
신탁업무이익	4,410	4,341	4,082	△259	△6.0
기타 비이자이익	△24,919	△27,357	△36,501	△9,143	33.4
총이익(C=A+B)	414,778	390,932	369,001	△21,932	△5.6
충당금순전입액(D)	43,743	100,234	116,732	16,498	16.5
판매관리비(E)	175,378	180,593	175,540	△5,053	△2.8
영업이익(F=C-D-E)	195,657	110,105	76,728	△33,376	△30.3

주: 국내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17개사.
 자료: 예금보험공사.

비은행업무에 적극 진출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 1980년대 후반 20%대에 머물던 비이자이익의 비중이 1990년대에는 30%대,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도입 이후에는 40%대로 상승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구조적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내 은행부문 또한 전통적인 예대업무 외에 신용카드, 외환·파생상품, 유가증권매매, 각종 수수료사업 등 비은행업무의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의 다각화에 힘써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구조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는 여전히 이자이익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와 같은 수익구조의 편중성이 오히려 심화된 양상이다. 〈표 3〉은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의 수익구조 현황을 보여준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9년 현재 국내은행의 총이익 36.9조 원 가운데 이자이익이 32조 원에 달하여 이자이익의 비중이 86.7%에 달하고 있다.¹⁰⁾

10) 총이익은 판매관리비 및 대손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으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합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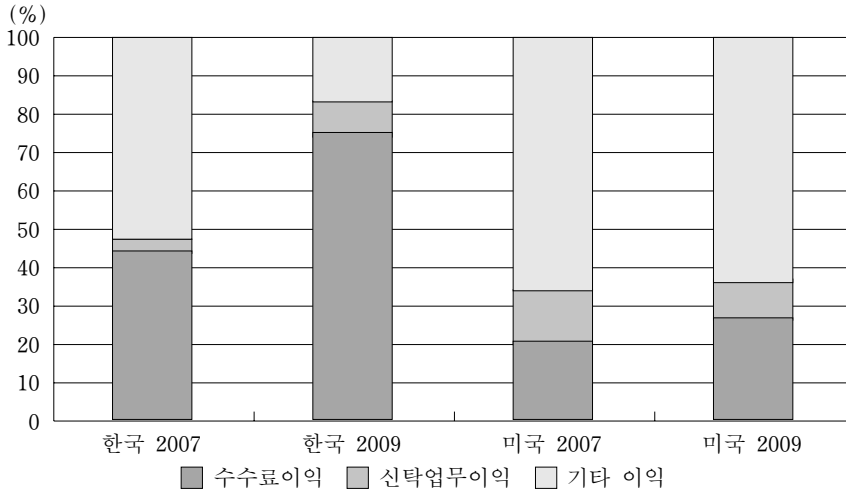
자료: 예금보험공사.

〈그림 14〉 한국 및 미국 상업은행의 비이자이익의 구성비 추이

이와 같은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편중현상은 최근 예대금리차의 축소에 따른 이자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비이자이익 영업부문의 위축과 손실 발생에 기인하고 있다. 이자이익은 2009년 전반적인 금리하락으로 수신금리가 하락하여 이자비용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며 예대금리차의 축소와 함께 이자수익이 감소하였다.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2009년 4.9조 원으로 총이익 중 13.3%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수료이익이 감소한데다 2007년 대비 유가증권 관련이익도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2008년에 이어 파생상품 관련손실도 지속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총이익 중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14〉에서 보듯이, 2007년 25.4%에서 2008년 12.6%, 2009년 13.3%로 오히려 위기 이전에 비해 낮아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 비이자이익의 비중이 2007년 41%에서 2008년 유가증권 관련손실 등으로 일시적으로 36%로 하락한 후, 2009년 수수료이익의 증대에 힘입어 다시 40% 수준을 회복하였음을 감안할 때,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는 비이자이익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비이자이익의 업무기반 또한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이자이익의 구성을 보면 국내은행은 2009년 수수료이익의 비중이 전체 비이자이익의 75%에 달하여 미국 은행의 27%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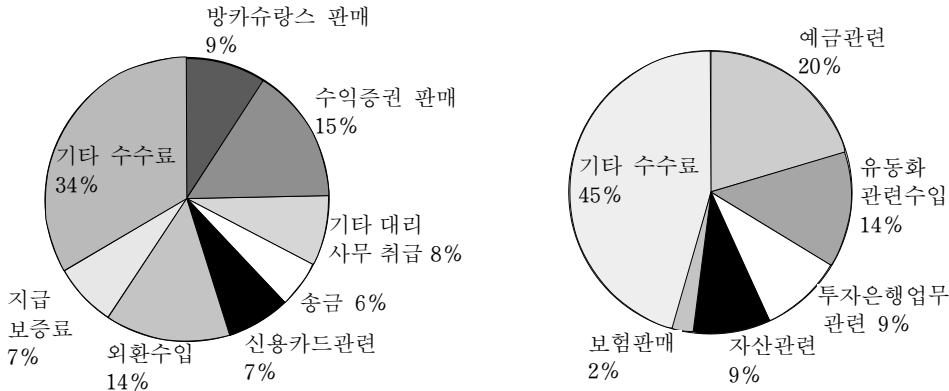
주: 기타 이익은 유가증권 관련이익, 외환거래이익, 파생상품 관련이익, 기타 비이자이익을 포함. 미국 상업은행은 7,283개 은행기준 FDIC 자료임.

자료: 예금보험공사.

〈그림 15〉 한국 및 미국 상업은행의 비이자이익 구성비

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 파생상품 관련이익과 기타 비이자이익에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수수료이익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음에 기인한다. 미국 은행의 경우에는 국내은행에 비해 기타 이익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유가증권 관련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IB관련 업무이익, 벤처투자 관련이익, 유동화 관련이익 등 기타 비이자이익의 비중이 국내은행에 비해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은행도 기타 이익 중 변동성이 낮은 업무를 중심으로 비이자이익 업무를 다변화해 갈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국내은행의 수수료이익의 세부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그림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카슈랑스 판매, 수익증권 판매, 기타 대리사무 취급 등 대리사무 취급관련 수수료의 비중이 32%에 달하여 은행 자체적인 수수료 업무에 의한 이익창출보다는 펀드와 보험상품 등 판매대리 업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향후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와 판매채널이 강화될 경우 이러한 대리업무를 통한 수수료이익 창출기반은 더욱 약화될 소지가 크다. 반면 〈그림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 대형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예금관련 수수료, 유동화 관련수입, 투자은행 업무관련 수수료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국내은행은 계좌유지 등 예금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데 한계가 있고, 투자은행 업무도 프로젝트파이낸싱 수수료를 제외하면 관련 투자은행 업무에 대한 경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현장정보'(2010. 4)와 '보도참고자료'(2007. 7)로부터 재구성.

〈그림 16〉 한국 및 미국 상업은행의 수수료수익 구성비

쟁력 부족 등으로 컨설팅, 국제인수, M&A 관련업무 등을 통한 수수료수익이 거의 미미한 상황이어서 비이자이익 업무의 전반적인 확대와 더불어 자산관리 수수료 등 수수료수익의 다변화도 시급한 상황이다.¹¹⁾

III. 국제은행 패널자료를 이용한 경영전략 성과분석

본절에서는 은행의 다양한 경영전략 중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전략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글로벌 경쟁적 관점에서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은행의 대형화 전략, 은행규모의 자생적 성장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대출확대전략, 그리고 최근 금융시장에서의 제도적 규제완화와 경쟁심화로 인해 저하된 수익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의 수익다각화 전략에 대한 성과를 전 세계 8,404개 은행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1. 경영전략별 기존 논의

(1) 은행의 대형화

은행이 대형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11) 2010년 4월 현재 국내은행의 투자은행 업무는 유가증권 인수, 매출, 위탁매매는 국공채로 제한되고 있으며 자산관리 업무도 신탁업무로 제한되어 있다.

가능하게 하여 은행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또한 대형화로 인하여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는 경우 은행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여 재무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다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지배력이 큰 대형 은행의 출현은 경쟁저하와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하는 면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은행의 대형화는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모두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 양자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은행 대형화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일관되지 못한 결과들을 보여준다. 우선 대형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Berger *et al.* (1999), Hughes and Mester(1998) 등은 미국 은행산업에 유의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다. Hannan(1991), Callem and Carlino(1991)도 역시 은행의 규모와 시장지배력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대형화가 수익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Boyd and Runkle(1993)은 기업가치와 미국 금융지주회사의 규모와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 Akhavein *et al.*(1997)과 Chamberlain(1998) 등에서는 합병 이후의 은행들에서 수익성 제고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은행 대형화가 은행의 재무위험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Craig and Santos(1997)는 합병된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z*-score와 주가수익률의 변동성으로 측정된 도산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Boyd and Gertler(1993)는 대형 은행에서 위험이 높은 경영을 할 유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Demsets and Strahan(1997)도 대형 은행들의 재무위험이 낮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De Nicolo(2000)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은행들에 있어서 은행의 규모가 클수록 *z*-score로 측정된 은행 도산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e Nicolo *et al.*(2003)는 세계 500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대형 금융회사나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z*-score로 측정된 은행 도산위험이 체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정형권(2007)은 2002~2005년 기간 중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자산규모의 확대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김현욱(2003)은 국내은행의 대형화가 은행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1999년 4/4분기부터 2003년 2/4분기까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일관성 있는 분석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2) 대출확대전략

최근 은행들은 성장전략의 하나로서 자생적 성장(internal growth)을 통해 경쟁적으로 규모를 키워왔다. 대형화는 인수·합병 또는 자생적 성장을 통해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 대출규모의 확대가 주된 수단이 된다. 예대마진이 주 수익원인 상업은행에 있어 대출규모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이익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여신규모의 확대가 우량 신규고객의 획득을 동반하거나 기존 우량고객에 대한 점유율(share of wallet) 제고 효과를 수반한다면 장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될 소지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리한 대출확대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출부실화를 통해 은행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도 높다.

대출확대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Clair(1992)는 여신성장률과 여신건전성 간의 관계가 성장의 원천(sources)에 따라 상이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Clair(1992)는 1970년대와 1980년대 Texas 은행들의 연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수 합병 등이 아닌 자생적 성장의 경우 성장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면 당장은 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차를 두고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연구로는 김현욱(2003)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은행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대출집중도가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신증가율 변수들은 일관성 있는 설명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3) 수익다각화 전략

이론적으로 볼 때 은행의 비은행업무 확대는 서로 상이한 업무의 동시적 영위를 통한 범위의 경제와, 복합상품개발, 교차판매 등 시너지효과의 실현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비은행업무의 확대가 은행의 위험, 즉 수익의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 은행의 비이자이익이 이자이익과 상호 상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분산효과의 실현을 통해 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신금융기법의 발전으로 은행업무와 비은행업무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교차판매 등으로 고객기반이 동질화됨에 따라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간의 상관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분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Stiroh, 2004a).

또한 비은행업무는 전통적인 예대업무에 비해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De Young and Roland(2001)에 따르면, 첫째 비이자업무는 관계금융에 기반한 이자업무와는 달리 금융회사를 전환하는데 따르는 거래 비용이 낮아 고객기반의 유지가 어렵고, 둘째 비은행업무에는 신기술, 전문인력 등 적지 않은 고정비용 투자가 요구되어 영업 레버리지가 높아지게 되며, 셋째 비은행업무는 자산기반 업무와는 달리 규제자본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재무 레버리지의 상승을 통해 총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은행업무의 확대는 경영의 복잡성 증대에 따른 규모의 비경제와 운영위험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은행에 대한 공적 안전망을 활용한 적극적인 위험추구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유사시 은행과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손실이 은행부문까지 전이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결국 개별 은행은 이러한 다양한 수익성 제고요인과 위험상승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 대비 예상수익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비은행업무 다각화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관련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은행업무의 확대에 따른 영향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유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익성 제고효과와 분산효과에 따른 수익의 안정화 효과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Smith *et al.*, 2003; Valverde and Fernandez, 2007), 미국의 경우에는 비은행업무의 확대가 오히려 수익의 변동성을 높여 위험 대비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De Young and Roland, 2001; De Young and Rice, 2004; Stiroh, 2004a, 2004b).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미국과 달리 유럽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비은행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Hahm(2008)은 1992~2006년 기간 중 29개 OECD 국가의 총자산 50억 달러 이상 662개 상업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은행업무의 확대가 은행의 수익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은행 비이자이익의 확대가 은행의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수익의 변동성을 높이는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가 반드시 은행의 수익성 제고와 위험분산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다.

2. 데이터 및 분석방법론

이하에서는 상기한 은행 경영전략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 은행 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항에서는 대형화 전략, 대출확대전략, 수익다각화 전략 등 세 가지 경영전략의 효과를 전 세계 은행 재무자료를 수록한 Bankscope DB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Bankscope 데이터 중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 세계 8,404개 은행들의 연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자산증가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대형화 전략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총자산규모의 로그변수($\ln asset$)를 사용하였다. 대출확대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대출확대전략은 총자산 대비 대출비중($loan_asset$)과 대출증가율(gr_loan)을 대리변수로 선택하였으며, 비이자이익의 확대를 통한 수익다각화 전략은 총이익 중 비이자이익의 비율($niir$)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실증분석모형에는 자산 대비 자본비율(eq_asset)을 개별 은행의 특성에 대한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도 일인당 GNI(gni_pop), 실질GDP성장률(gr_gdp), 실질이자율($rrate$), CPI기준 인플레이션($infl_cpi$), GDP 대비 상장기업의 시가총액($mktcap_gdp$) 등의 거시경제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표본에서 극단적 값들을 취하는 통계적 이상점(outlier)들은 제거하였으며, 은행별로 관찰치가 5개년도 이상인 경우에만 표본에 포함하였다.¹²⁾ 각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나 계수들이 비교적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경영전략별 경영성과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법을 취하였다. 첫 번째 접근법은 경영전략의 단기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패널분석을 실행하였고, 두 번째 접근법은 장기효과를 보기 위해 은행별로 표본기간 내 평균치를 구한 후 횡단면 분석을 실행하였다. 우선 연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각 경영전략들이 개별 은행의 수익성(ROA)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경우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내생성 문제를

12) ROA, ROE, 비용효율성이 각각 10,000 이상, 순이자수익이 음(-), 비이자이익비중이 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각 은행별 관찰치가 5개 이상인 은행들만 포함시킨 이유는 추후 평균표본을 이용한 횡단면 실증분석에서 평균 수익성, 수익의 변동성 및 은행 도산 위험 등의 수치들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본 항의 실증분석을 은행별 관찰치를 5개 이하 표본까지로 확대하는 경우에도 분석의 질적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감안하여 독립변수들은 1개년도 후행한 시차변수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은행의 경영전략이 수익성, 수익의 변동성 및 은행 도산위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표본기간 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은행의 평균수익률, 수익의 변동성, 은행 도산위험 등의 변수들을 구성한 후 횡단면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연도별 패널분석은 국가별 고정효과와 연도별 고정효과를 감안한 최소자승추정법을 이용하였고, 평균표본 횡단면 분석은 국가별 고정효과를 고려하였다.

3. 실증분석 결과

(1)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

1) 은행의 경영전략별 수익성 효과 분석

〈표 4〉는 연도별 패널자료를 토대로 각 경영전략이 은행 수익성(ROA)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 1은 개별 은행의 특성만을 고려한 모형이고, 모형 2는 거시경제변수를 통제한 모형이다. 모형 3과 모형 4는 대출확대전략 중 대출증가율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모형이며, 모형 5는 모형 4를 OECD 국가의 은행표본으로 국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대형화 효과는 제시된 모든 모형의 추정결과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며 대형화 변수(lnasset)가 수익성에 강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에 수행된 모든 수익성 모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대출확대효과는 두 가지 변수로 추정하였는데 각각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대출비중변수(loan_asset)는 자산규모변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모형결과에서 수익성에 강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대출증가율(gr_loan)의 경우에는 거시경제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 3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며, 거시경제변수들을 통제한 모형 4에서는 수익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OECD 은행표본으로 국한하여 분석한 모형 5에서도 역시 대출증가율이 수익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대출규모의 빠른 확대, 즉 대출증가율(gr_loan)은 단기적으로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비이자이익의 확대를 통한 수익다각화 전략(niir)은 모든 추정결과에서 수익성에 강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표 4〉 수익성(ROA) 효과(연도별 자료 패널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OECD 표본)
lnasset	0.082*** (16.89)	0.089*** (18.70)	0.087*** (16.95)	0.087*** (18.67)	0.077*** (22.44)
loan_asset	0.004*** (10.29)	0.004*** (10.38)	0.005*** (10.74)	0.005*** (12.30)	0.007*** (24.05)
gr_loan			-0.038 (-1.613)	-0.073*** (-3.484)	-0.210*** (-13.55)
niir	0.010*** (20.87)	0.009*** (19.56)	0.008*** (16.38)	0.008*** (17.68)	0.011*** (30.21)
eq_asset	0.031*** (28.04)	0.054*** (45.96)	0.052*** (40.01)	0.051*** (43.17)	0.049*** (51.57)
gr_gdp		5.602*** (10.000)		5.726*** (10.27)	1.231 (1.182)
rrate		-0.017*** (-6.404)		-0.016*** (-6.406)	0.003 (0.398)
infl_cpi		0.005*** (5.605)		0.006*** (6.055)	0.005 (0.789)
mktcap_gdp		0.004*** (5.539)		0.003*** (5.335)	0.005*** (6.864)
관측치수	71,274	62,357	62,649	62,270	56,688
R-squared	0.100	0.136	0.116	0.134	0.127

주: 종속변수는 ROA이며 독립변수는 모두 1기간 시차변수임. 연도별 표본을 기초로 국가별 고정효과와 연도별 고정효과를 감안한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 () 안은 t -값을 나타냄.

2) 대출확대전략과 시장집중도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은행산업의 경쟁적 환경이 은행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가별 은행산업의 경쟁적 환경을 감안할 때 앞서 제시한 대출확대전략의 효과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은행산업의 경쟁적 환경을 추정하기 위해 Bankscope 자료에 수록된 은행들의 자산규모를 바탕으로 각 연도별로 각 국가의 은행산업 시장집중도(CR3)를 계산하였다.¹³⁾ CR3 추정의 한계로 인

13) 여러 시장집중도지수 중 CR3만을 고려한 이유는 자료의 제약 때문이다. 아울러 본 분석에서 추정하여 사용한 CR3지수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즉, 규모가 상위 3개사에 포함되지만 Bankscope DB에는 누락된 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 추정치에

〈표 5〉 국가별 시장집중도를 고려한 수익성(ROA) 효과(연도별 자료 패널분석, OECD 국가)

	모형 1	모형 2
lnasset	0.077*** (22.37)	0.077*** (22.40)
loan_asset	0.007*** (24.05)	0.007*** (24.11)
gr_loan	-0.210*** (-13.55)	-0.328*** (-9.850)
niir	0.011*** (30.21)	0.011*** (30.11)
eq_asset	0.049*** (51.57)	0.050*** (51.68)
CR3	0.353 (1.195)	0.280 (0.946)
gr_loan x CR3		0.491*** (3.996)
gr_gdp	1.186 (1.137)	1.141 (1.095)
rrate	0.003 (0.353)	0.004 (0.495)
infl_cpi	0.005 (0.779)	0.003 (0.523)
mktcap_gdp	0.005*** (6.811)	0.005*** (6.642)
관측치수	56,688	56,688
R-squared	0.127	0.127

주: 종속변수는 ROA이며 독립변수는 모두 1기간 시차변수임. 연도별 표본을 기초로 국가별 고정효과와 연도별 고정효과를 감안한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 () 안은 t -값을 나타냄.

하여 본 실증분석은 1992~2006년 기간 중 OECD 은행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5〉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모형 1에서는 시장집중도(CR3) 자체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대출증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Bankscope에 수록된 은행자료만으로 CR3지수의 분모에 해당하는 은행산업 전체 규모를 계산한 것도 불완전할 수 있다. 그러나 Bankscope에는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이 수록되어 있고 누락된 은행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은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본 분석의 CR3 추정치의 편의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가율과 시장집중도의 교차항을 추가로 고려하였는데 이 교차항은 은행의 수익성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대출확대전략의 효과는 $(-0.328+0.491*CR3)*gr_loan$ 로 파악되는데 CR3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이 결과는 대출확대전략이 시장집중도의 수준에 따라서 그 효과의 부호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CR3의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고, 반면에 CR3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효과가 작아지며, 높은 CR3의 값(CR3가 0.328/0.491보다 큰 값)에서는 그 효과가 양(+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시장경쟁도가 하락할 수 있고 따라서 독과점적 대출확대의 수익증대효과가 한계 차입자에 대한 대출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장집중도의 상승이 반드시 시장경쟁도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쟁도가 오히려 상승한 경우에는 대출확대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장집중도의 직접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시장집중도의 효과는 $0.491*gr_loan*CR3$ 로 파악된다. 즉, 대출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시장집중이 양(+의 효과를 갖고 감소하는 경우에는 음(-)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2) 평균표본을 이용한 횡단면 분석

1) 수익성, 수익변동성 및 은행 도산위험에 미치는 영향분석

다음은 은행 경영전략이 은행의 수익성, 수익의 변동성 및 은행 도산위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표본기간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로 연간 수익성의 기간 평균, 수익의 변동성, 은행 도산위험 등의 변수들을 구성한 후 은행별 횡단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표 6>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모형 1은 평균수익성(ROA), 모형 2는 수익의 변동성(ROA의 표준편차), 모형 3은 은행 도산위험(z-score)이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되었다. 모형 4, 모형 5, 모형 6은 모형 1, 모형 2, 모형 3 각각을 OECD 표본에 국한시킨 분석결과이다.

우선 대형화 전략(lnasset)은 모형 1에서 보듯이 연간자료 결과와 동일하게 수익성에 강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모형 2와 모형 3의 결과를 보면 대형화 전략은 수익의 변동성을 낮추고 z-score를 높여 은행 도산위험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OECD 표본결과인 모형 4~모형 6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대출확대전략을 대리하는 두 변수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대출비중변수(loan_asset)는 모형 1에

〈표 6〉 수익성, 수익변동성 및 은행 도산위험 분석(평균표본 횡단면 분석)

	모형 1 전 표본	모형 2 전 표본	모형 3 전 표본	모형 4 OECD	모형 5 OECD	모형 6 OECD
종속변수	ROA	ROA의 표준편차	z-score	ROA	ROA의 표준편차	z-score
mlnasset	0.117*** (13.18)	-0.046*** (-6.351)	5.984*** (14.27)	0.100*** (12.68)	-0.055*** (-9.991)	6.632*** (14.67)
mloan_asset	0.005*** (6.533)	0.005*** (7.744)	-0.262*** (-7.538)	0.006*** (9.567)	0.004*** (7.908)	-0.242*** (-6.631)
mgr_loan	-0.491*** (-6.682)	0.097 (1.621)	-52.018*** (-14.96)	-0.647*** (-9.769)	0.305*** (6.557)	-56.804*** (-14.90)
mniir	0.012*** (12.61)	0.015*** (18.39)	-0.747*** (-16.26)	0.013*** (15.68)	0.014*** (22.96)	-0.801*** (-16.29)
meq_asset	0.050*** (23.45)	0.055*** (31.22)	1.433*** (14.02)	0.048*** (23.26)	0.045*** (31.07)	1.784*** (15.01)
mgr_gdp	19.498*** (3.555)	-33.268*** (-7.434)	69.361 (0.267)	37.443*** (3.351)	-23.226*** (-2.955)	956.022 (1.486)
mrrate	-0.009 (-0.518)	0.075*** (5.091)	0.125 (0.145)	0.217*** (3.399)	-0.059 (-1.326)	-0.846 (-0.230)
minfl_cpi	-0.001 (-1.302)	-0.003*** (-3.937)	0.009 (0.190)	0.029 (0.944)	-0.021 (-0.977)	1.870 (1.063)
mmktcap_gdp	0.025*** (7.046)	-0.023*** (-8.174)	1.526*** (9.255)	0.042*** (9.813)	-0.033*** (-10.85)	2.017*** (8.223)
관측치수	8,404	8,404	8,403	7,839	7,839	7,839
R-squared	0.284	0.439	0.148	0.189	0.280	0.124

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 전체 기간 평균수치이며 회귀분석은 국가별 고정효과를 고려한 횡단면 분석임. () 안은 t-값을 나타냄.

서 보듯이 연도별 자료결과와 동일하게 수익성에 강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대출증가율(gr_loan)의 경우는 수익성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두 변수는 수익의 변동성 및 은행 도산위험에 관해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대출비중이 높거나 대출증가율이 높은 경우 수익의 변동성을 높이고 z-score를 낮추어 은행 도산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이자익비중의 확대를 통한 수익다각화 전략(niir)은 모형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반면, 모형 2~모형 6

의 결과를 보면 수익의 변동성을 높이고 z-score를 낮추어 은행 도산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부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¹⁴⁾ 이러한 결과는 Hahm(2008)의 OECD 국가의 대형 은행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2) 대형화 전략의 비선형적 효과분석

본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기본 실증분석에 추가하여 은행이 대형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규모가 커질수록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점차 지배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형화의 비선형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총자산규모 로그변수의 2차항을 추가한 모형을 고려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1을 보면 수익성에 대해 총자산규모의 2차항에 대한 계수가 유의하게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은행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대형화의 효과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 추정치들을 이용하여 대형화의 효과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수치를 도출하면 23.382가 된다. 이때 표본에 포함된 은행 중에서 97%의 은행들이 그 자산규모(mlnasset)가 이 수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다수의 은행들에게는 대형화가 수익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 16)} 모형 2에서는 수익의 변동성에 대하여 자산규모변수의 1차항은 유의하지 않고 2차항은 유의하게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의 변동성은 점증적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z-score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마찬가지로 비선형적 관계를 보이며 이는 대형화가 진행될수록 z-score가 높아지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은행 대형화가 은행 도산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다가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 커지는 경우 은행 도산위험이

14) 총자산 대비 대출비중(mloan_asset)과 비이자이익비중(niir) 간의 상관관계를 평균표본에서 구해 본 결과 그 상관계수가 0.0539로서 상관성이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논리적으로 볼 때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나, 비이자이익의 증가가 총자산 중 비대출성 자산의 증가를 반드시 수반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두 변수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의 다각화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15) 자산규모에 관하여 2차항수 포물선의 꼭짓점을 산출하면 그 꼭짓점은 $0.795/(2*0.017)=23.382$ 로 도출된다.

16) 대형화가 수익성 및 수익의 안정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개별 은행 차원보다는 은행 지주회사와 같은 금융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더 의미가 클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제은행 재무자료상의 한계에 의해 은행 지주회사와 같은 금융그룹을 경제적 단위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기보다는 개별 은행을 기본 분석단위로 하여 대형화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7〉 대형화의 비선형적 효과를 고려한 수익성, 수익변동성 및 은행 도산위험 분석
(평균표본 횡단면 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종속변수	ROA	ROA의 표준편차	z-score
mlnasset	0.795*** (7.680)	0.127 (1.502)	37.271*** (7.605)
meq_asset	0.051*** (23.64)	0.055*** (31.26)	1.445*** (14.17)
mgr_loan	-0.513*** (-6.987)	0.092 (1.528)	-53.010*** (-15.27)
mloan_asset	0.004*** (5.646)	0.004*** (7.416)	-0.292*** (-8.321)
(mlnasset) ²	-0.017*** (-6.577)	-0.004** (-2.052)	-0.807*** (-6.407)
mniir	0.013*** (13.08)	0.015*** (18.50)	-0.726*** (-15.80)
mgr_gdp	22.364*** (4.075)	-32.537*** (-7.249)	201.343 (0.775)
mrrate	-0.009 (-0.486)	0.076*** (5.102)	0.152 (0.178)
minfl_cpi	-0.001 (-0.965)	-0.003*** (-3.827)	0.025 (0.519)
mmktcap_gdp	0.020*** (5.806)	-0.024*** (-8.408)	1.339*** (8.014)
관측치수	8,404	8,404	8,403
R-squared	0.288	0.439	0.152

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 전체 기간 평균수치이며 회귀분석은 국가별 고정효과를 고려한 횡단면 분석임. () 안은 *t*-값을 나타냄.

다시 높아짐을 의미한다.

3) 대출확대전략과 시장집중도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은행의 경영전략이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시장집중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분석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본은 역시 OECD 국가의 은행으로 국한하였다. 모형 1의 추정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장이 집중되어

〈표 8〉 시장집중도를 고려한 수익성, 수익변동성 및 은행 도산위험 분석
(평균표본 횡단면 분석)

	모형 1 OECD 표본	모형 2 OECD 표본
종속변수	ROA	ROA
mlnasset	0.098*** (12.54)	0.101*** (12.95)
mloan_asset	0.006*** (9.623)	0.006*** (10.16)
mgr_loan	-0.662*** (-9.987)	-2.219*** (-12.96)
mniir	0.013*** (15.77)	0.013*** (15.62)
meq_asset	0.048*** (23.21)	0.049*** (23.67)
mCR3	5.482*** (3.694)	4.131*** (2.789)
mgr_loan x mCR3		6.549*** (9.853)
mgr_gdp	29.583*** (2.603)	35.005*** (3.095)
mrrate	0.295*** (4.398)	0.253*** (3.781)
minfl_cpi	0.002 (0.0781)	-0.026 (-0.844)
mmktcap_gdp	0.039*** (8.886)	0.037*** (8.681)
관측치수	7,839	7,839
R-squared	0.191	0.201

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 전체 기간 평균수치이며 회귀분석은 국가별 고정효과를 고려한 횡단면 분석임. () 안은 t-값을 나타냄.

있을수록 은행 수익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시장집중도와 대출증가율의 교차항을 추가하였는데, 연도별 패널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차항 변수가 은행 수익성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간의 대출확대전략은 은행 수익성을 하락시

키나 시장집중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효과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IV. 위기 이후의 은행 경영전략

1. 금융규제의 강화와 은행 경영환경

현재 G20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은행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방안으로는 크게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은행세(bank levy) 부과, Volcker Rule 및 경영진 보상체계 관련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논의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동 규제들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은행경영에 대해 갖는 함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만 규제의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계량영향평가(quantitative impact study: QIS)가 각국별로 진행 중이고, 도입 시기나 형태도 그 결과를 기초로 국제적 공조를 통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개략적인 방향만 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자본 및 유동성 관련규제는 2009년 12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발표한 자본규제 개편안¹⁷⁾ 및 유동성 관리 권고안¹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선 손실흡수 능력이 미약한 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 등을 배제한 후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아울러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경기순응성을 제어하기 위한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에 대한 추가자본(capital surcharges)의 적립까지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는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대출이 축소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국내은행의 핵심자기자본비율(Core Tier I ratio) 및 BIS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대출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

17) BCBS,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banking sector-consultative document," December 2009.

18) BCBS, "International framework for liquidity risk measurement, standards, and monitoring," December 2009.

으로 지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본규제의 보완적 성격으로서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¹⁹⁾ 규제의 도입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입될 경우 자산규모 확대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BCBS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²⁰⁾ 핵심조달비율(core funding ratio),²¹⁾ 순안정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²²⁾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예대율 규제²³⁾를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유동성 규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예수금의 비중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시장성 자금조달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국채 등 무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이 증대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평균 조달비용률은 상승하고, 평균 운용수익률은 하락하여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은행세(bank levy)는 도산 금융회사에 투입하였던 구제금융자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대마불사(too-big-to-fail)의 폐단을 초래하는 은행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금융위기 과정에서 논의되었는데, 2010년 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영국·프랑스 등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중에도 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한 바 없는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신흥국들은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은행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일정률의 금융시장 안정 분담금(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어떠한 형식으로 도입되든 새로운 비용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Volcker rule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및 대형화에 수반되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차단하기 위해 2010년 1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제시

19) 신용경감 수단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트레이딩계정, 유동화, 난외계정을 모두 포함한 총자산 대비 Tier I 자본(또는 보통주 자본)으로 정의함.

20) 감독당국에 의해 설정된 스트레스 시나리오하에서 발생할 순현금유출을 30일간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유동성 자산비율로 정의함.

21) (소매예금+일정 만기 이상의 도매예금)/총수신.

22) 은행의 장기적·고정적 투자활동이 장기적·안정적 자금을 의해 뒷받침되는지 판단하는 지표임.

23)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CD 제외)≤100%, 향후 BCBS의 유동성 규제가 확정될 경우 예대율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된 아이디어로서,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도드-프랭크법」(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에 반영되어 있다. 최종 반영된 Volcker rule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결합시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부채기준 시장점유율 상한선(10%) 도입, 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 및 계열회사의 대고객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 금지, 동 회사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PEF)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Tier 1 자기자본의 3% 이내에서만 허용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제가 국내에 직접 도입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 동안 사모펀드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에 투자해 왔던 미국계 은행 및 은행계열사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병호, 2010). 아울러 상업은행의 위험투자활동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기조가 확산될 것이므로 상업은행의 사업범위가 실물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증대기능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가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야기하였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건전한 보상원칙」(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2009. 4) 및 「보상원칙 이행기준」(Implementation Standards, 2009. 9)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보상위원회를 구축하고 리스크 및 준법감시 부문의 보상을 사업부문과 독립적으로 설계하는 등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 둘째, 고위급 경영진과 회사의 리스크 익스포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장기간 이연지급하도록 하고,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지급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리스크를 감안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셋째, 보상정책 결정 절차, 보상 총계, 고위급 경영진과 직원들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보상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넷째, 금융회사 구제 등 정부의 특별조치가 있는 경우, 감독당국이 동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에 개입하는 등 보상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감독당국은 2010년 1월 「FSB 보상원칙 국내이행을 위한 업권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현재 G20을 중심으로 많은 금융규제방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이러한 규제변화가 국내 은행산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큰 방향은 감지할 수 있는 바, 이를 기초로 향후 국내은행의 경영전략에 대한 함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과거와 같은 수준의 높은 자생적 성장(internal growth)을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은행은 성장에 대해 철저한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시스템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세금의 형태이든 자본비용을 부담시키는 형태이든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은행의 대출변동성에 따라 완충자본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Yoshino, 2010). 따라서 은행은 어떤 형태의 자산 한 단위를 증대시키거나 거래를 체결하는데 소요되는 영업비용뿐 아니라 규제비용이 얼마인지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최적의 성장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이자부문의 수익비중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비이자부문의 경우 익스포저(exposure)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강화 추세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이점 이외에도, 현재 국내 일반은행들의 경우 이자이익의 비중이 총이익의 평균 89%에 이르기 때문에 수익원이 집중되는 위험(concentration risk)을 축소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높은 규제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경영진의 보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비이자부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국내은행의 비은행업무 확대는 세부부문별로 신중하고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개별 은행의 핵심 역량을 고려한 다각화 전략이 요구된다. 비은행업무 확대는 겸업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펀드 판매와 같은 판매형 겸업화와 과생상품 매매와 같은 위험인수형 겸업화를 구분하여 각각의 전략이 은행의 수익성과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위험인수형 겸업화는 실수로 위주로 개편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문형 서비스와 같은 대고객형 비이자수익 기반의 확대가 더욱 긴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정보기반 및 인적투자 확대, 관련 전문성 강화 등이 요구되며, 수익구조의 개편과정에서 대고객 채널의 개편 및 이를 통한 비용 효율화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²⁴⁾

셋째,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구조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은행세, 예대율 규제 등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규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은행의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

24) 선별적 겸업화와 대고객형 비이자수익 기반확대의 필요성은 익명의 심사자가 제시한 논평을 반영하였다.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문이다. 다만, 동일한 만기구조를 가질 경우 통상 정기예금이 시장성 조달수단에 비해 조달비용이 높기 때문에, 저원가성 예금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6년 하반기 이후 급증한 금융투자회사의 CMA와 연이은 소액지급결제 허용에 따라 은행의 저원가성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넷째, 잠재력 있는 해외시장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시장에서 시장점유율 경쟁을 계속하는 것은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차원에서도 자금흐름을 왜곡시켜 왔다. 해외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금융회사와의 관계형성(relationship building)이 보다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현지 금융회사는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시 안정적인 외화조달의 통로역할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사업파트너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최근 금융업이 비금융업과 결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업이 유통 및 통신업과 결합하는 융합(convergence) 모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특정 지역을 통과할 때 스마트폰이 현 위치를 파악하여 추천 매장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쿠폰을 발송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가 일어나는 형태의 수익모델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거래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금융·통신·유통의 맞춤형 융·복합 상품을 제공하는 시대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융·복합 수익모델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은행의 해외진출시에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섯째, 국내은행은 내부 경영관리체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리스크관리체제의 강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자본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여,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체제를 보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규제비용이 영업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익관리 및 비용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임직원들의 평가체계도 이러한 경제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국내은행들로 하여금 강도 높은 비용절감 노력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국내은행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시스템 위험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은 규제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처럼 대출자산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도 어려운 은행들로서는 수

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이 비용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법일 것이다.²⁵⁾

2. 성장전략과 대형화

상기한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규제환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은행들은 새로운 경영전략의 설정을 통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대형화를 통한 성장전략에 대해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자산규모의 증가를 통한 대형화 전략은 제Ⅲ절의 실증분석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지만 그 효과가 비선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은행의 수익성은 높아지나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은행의 수익성이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행 도산위험 또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낮아지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그 위험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화를 통해 기대되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적정 수준의 규모로 성장하는 경우에만 은행의 성과(수익성 및 위험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적정 수준은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은행의 수익구조, 영업활동, 비용구조, 그리고 은행이 처한 시장여건과 거시경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만일 국내은행이 이러한 최적규모에 이르지 못하여 추가적인 대형화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대형화를 어떻게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은행의 대형화 전략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다. 하나는 은행자산의 증가를 통한 자생적 대형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은행과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 전략이다. 이러한 두 전략에 대해 일반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현재 국내 은행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유의함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본절에서는 현재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대형화 전략 중 자생적 성장을 통한 전략은 그 진행과정에서 개별 은행

25) 국내 일반은행의 비용수익비율(cost-to-income ratio)은 2004년 말(40.9%)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46.3%)에 상승한 이후 2009년 말(47.2%)까지 대체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분성(2008a)은 주로 은행 보수체계의 변화와 성과급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 최적화를 단계별로 이루어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화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내재화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Ⅲ절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출증가율을 높이는 경우 수익성 악화, 수익의 변동성 증가 그리고 은행 도산위험 증가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금융시장의 환경이 경쟁적으로 변하고 있고, 국내은행들의 영업행위가 대체로 국내시장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내시장의 추가적인 성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각 은행들이 대출증가를 통한 성장전략을 추구하게 되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순이자마진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현상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우 은행 도산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전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²⁶⁾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볼 때 국내은행들이 아직 최적규모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전제하에 자생적인 성장전략보다는 현재 국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은행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 전략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을 통한 대형화 전략은 과도한 대출확대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소모적인 경쟁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 국내상황에 보다 적합한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은행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은행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합병 이후 새로운 은행규모에 적합한 각종 내부구조의 최적화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합병 자체가 은행의 규모를 외형적으로 크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두 은행의 단순 합이 영업행위, 자산구조, 수익구조, 비용구조의 최적상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두 은행 간의 중복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합병의 성패가 좌우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복구조가 심한 은행 간 결합보다는 보완적인 은행 간의 결합이 보다 수월한 이행과정을 보장해 줄 것이다. 아울러 합병된 은행이 기존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비용구조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대형화에 따른 비용이 이익을 초과할 수 있다.

26) Keeley(1990)는 1980년대 미국 은행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경쟁의 심화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하락하는 은행은 도산위험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하며 자본비용이 하락함을 보였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고 예금자보호제도가 존재하는 상황하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 문제의 심화로 인해 은행의 기업가치 하락이 은행의 도산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둘째, 합병은행의 적극적인 국제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영업방식대로 국내시장에만 집중한다면 대형화를 통한 생산자 측면의 이득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경쟁의 감소로 인해 소비자들의 후생감소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합병을 통한 은행 대형화가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의 확보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업무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당국도 개별 은행의 노력만으로는 진출대상 국가의 제도적 장벽을 뛰어넘거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국내 금융시장에서 은행 간 경합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합병을 통해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는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제한적 규모를 고려할 때 하나의 초대형 은행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중소형 은행들로 이루어진 특수한 은행산업구조가 불가피하며, 이 경우 초대형 은행의 국내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커져서 독과점적 폐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아울러 초대형 은행의 존재로 인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대마불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며,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초대형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단일한 초대형 은행의 출현이 의미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은행 간 경합성이 보장되는 산업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²⁷⁾ 따라서 합병을 통한 대형화 전략이 추진되더라도 단일한 초대형 은행이 시장을 압도하는 형태보다는 적어도 두 개의 대형 은행이 존재하여 상호 경합하는 구조가 더욱 바람직하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미국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Volcker rule은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총부채 기준)에 대한 10% 상한 규제를 담고 있어 은행 대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Volcker rule은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형 은행 간 합병에 대해 배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산업전략적 명제와 합병으로 인해 국내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대형화로 인해 시스템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 국제사회와의 공조 필요

27) Allen and Gale(2000)은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은행시스템에서는 두 개의 은행만이 존재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경쟁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였다.

성 등을 균형있게 만족시킬 정책조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3. 겸업화와 수익구조 다각화

제Ⅱ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는 최근의 대형화, 그룹화 진전 및 비은행업무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의 비중이 비이자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후진형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이익의 경우 은행 간 경쟁은 물론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부문과의 경쟁 심화로 예대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자이익의 기반인 이자부 자산의 확대에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의 발전과 함께 점차 시장중심형 금융구조로의 변화가 예상되어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은행여신에 대한 수요감소가 예상되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기자본, 유동성 등 각종 건전성 감독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임에 따라 은행의 여신공급 능력 또한 제약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예대업무에 있어서는 저원가성 자금조달기반의 확충을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신용심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적절한 차등금리의 적용을 통해 적절한 예대마진을 유지·확보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국내 은행부문은 수익성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비은행업무의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다각화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국제은행 패널자료를 이용한 제Ⅲ절의 실증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은행의 겸업화를 통한 비은행업무 확대는 수익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유발할 수 있지만 수익의 변동성 확대와 이에 따른 은행 도산위험도 높일 수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기자본투자와 트레이딩계정을 통한 부외거래 확대 등 적절한 위험통제가 수반되지 않은 무분별한 비은행업무의 확대가 어떻게 은행을 도산사태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은행의 비은행업무 확대가 아무리 절실한 과제라 하더라도 개별 은행의 다양한 재무적·비재무적 특성과 위험관리 및 인력의 전문성, 그리고 국내 거시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예상수익과 위험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고려하여 은행별로 적절한 다각화 수준과 전략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Hahm(2009)은 OECD 국가의 은행경영 자료를 이용하여 상업은행의 이익 중 비이자이익의 비중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자산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으며, 자본력이 풍부한 은행일수록 총이익 대비 비이자이익의 비중이 높

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 은행일수록 비은행업무 영위에 필요한 특화된 기술과 인력의 확보를 위한 투자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전략에 있어서도 대형 은행은 여신심사 및 위험관리의 계량화를 통해 단위당 대출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 대형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고 이자마진이 감소하게 되어 비은행업무 다각화를 통한 이익보전이 불가피한 반면, 관계금융에 의존하는 소형 은행의 경우에는 고객이탈 가능성이 낮아 예대업무에 있어서도 일정 수준의 적정이익 확보가 가능하여 비은행업무 확대에 비교적 덜 적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대형 은행일수록 비이자이익의 확대유인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익다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영여건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ahm(2009)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순이자마진이 낮고, 위험성향이 높으며, 비용 효율성이 낮은 은행일수록 총이익 대비 비이자이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순이자마진이 낮을수록 이익창출에 대한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높고, 위험성향이 높을수록 비은행업무 확충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고부가가치 비은행업무의 확충에는 높은 고정비용이 수반되므로 비은행업무를 확대하는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은행의 적정 비이자이익비중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되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낮으며,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의 은행들의 비이자이익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가 안정성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예금 및 대출자산의 확대에 따른 수익증대 기회가 점차 줄어들게 되며, 물가가 안정된 국가일수록 장기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의 성장이 용이하여 은행과 자본시장 간 다양한 연계업무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성장에 따른 시장중심형 금융구조로의 변화는 기업금융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저축의 자본시장 다변화를 유발하여 은행시장의 경쟁도와 예대업무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펀드 판매, 유가증권 매매, 투자은행 업무 등 다양한 자본시장 연계활동을 증대시켜 은행의 비이자이익비중 확대를 뒷받침하게 된다. 특히, 비은행업무 가운데에서도 주식시장이 보다 발전된 국가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자산유동화 등 관련 비은행업무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비이자이익 확대 추세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안정성장 기조의 정착, 자본시장의 발전 추세 등에 비

추어 일면 불가피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은행업무의 확대 추세가 궁극적으로 국내 은행부문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은행 내 전문인력의 양성과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역량이 먼저 제고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배병호(2006)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5년까지의 국내 일반은행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비은행업무의 확대가 은행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이고, 이는 국내은행의 업무범위가 외국은행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투자은행 업무 등 고수익·고위험 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²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업무별로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 등의 수수료 부문이 수익 변동성 완화에 크게 기여한 반면,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관련 부문은 수익 변동성을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은행은 수수료부문의 업무 확대 및 다각화를 일차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앞서 제II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은행은 수수료부문의 경우 외국은행에 비해 수수료수입의 구성이 다원화되어 있지 못하다. 업무대행 수수료, 기업컨설팅 수수료 등 기존 수수료사업부문의 적극적인 확대와 더불어 비용체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수수료 현실화도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점진적으로 자산관리 등 신규 수수료사업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수수료 수익원의 다양화와 더불어 투자은행 업무영역의 확대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은행과 투자은행의 그룹 내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은행 본체에서는 국공채의 인수, 매출, 위탁 매매, 신탁업무 등의 제한된 투자은행 업무가 허용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직접적인 투자은행 업무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은행의 자기자본투자와 트레이딩계정 거래 등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⁹⁾ 그러나

28) 강종구(2006), 오완근·김형식·송홍선(2007) 등도 한국의 경우 은행의 겸업화는 은행의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Hahm and Kim(2007)은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와 독립 금융회사의 도산위험을 분석한 결과 그룹소속사의 도산위험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겸업화 효과보다는 대형화에 의한 수익성 및 수익 변동성 개선효과에 기인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29) 서병호(2010)는 볼커룰의 국내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은행 3개사, 생보사 3개사, 손보사 4개사 등 총 10개사의 부채기준 시장점유율이 이미 10%를 상회하고 있어, 인수·합병의 제한과 관련된 조항이 가장 문제시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총 12개의 사모펀드를 소유한 국내은행 지주회사들의 직·간접적인 투자제한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능성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트레이딩계정 거래 위축이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에 대한 국내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바 있으며, 자본시장과 관련된 비은행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은행수익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실물거래와 관계가 적은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자본 부과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은행의 경우에도 국채 매입 등의 시장조성 업무,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 등 불가피한 자기자금 거래를 제외하고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대한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나 유가증권, 외환, 원자재, 파생상품 등에 대한 트레이딩계정 거래를 확대하는 전략은 향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은행의 투자은행 업무는 본체에서의 독자적인 투자은행 업무 내부 경영 방식보다는 지주회사그룹 내 기업금융 및 투자은행서비스 역량의 강화와 시너지효과의 실현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은행 업무와 연계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⁰⁾ 예컨대, 기업금융에 있어 여신업무와 증권업무의 연계, 중소기업 여신의 유동화,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 주선, M&A, 채무자문 등 은행은 자금력과 기업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투자은행 관련업무를 공동수행 지원하면서 관련 수수료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그룹 내 매트릭스 조직의 활성화 등 겸업화 체제의 구축과 전문인력의 확충 및 인센티브체제 마련, 은행과 금융투자 자회사 간 정보교류 및 수익분담체계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위험관리시스템의 강화와 내부 통제기능의 확충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이한 비은행업무에 특화하여 은행 간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간 비은행업무의 구성도 지나치게 동질적이다. 이러한 은행 간 군집행동과 모방전략은 시스템 전반적으로도 은행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은행별로 개별 은행의 특성과 능력을 감안한 비은행업무의 특성화 및 차별화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0) 정윤미(2010)도 한국형 투자은행 모델의 정립을 위해서는 상업은행의 내부경영 방식보다는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의 CB 및 IB 업무를 결합하는 외부경영 방식이 적합함을 주장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은행산업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구조변혁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국내은행들은 비록 다행히 서브프라임 위기의 직접적인 피해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위기의 신흥시장 파급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취약성은 대부분 지난 10여 년간 우리 은행산업이 취해온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전성 감독규제의 강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은행의 기존 경영전략을 평가하고, 세계 8,404개 은행의 재무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위기 이후의 새로운 은행 경영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위기 이전 국내은행의 경영전략은 다음과 같이 특성화할 수 있다. 첫째, 국내은행은 총자산 대비 대출의 비중이 이미 높은 가운데 대출자산의 추가적인 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전략을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00~2009년 기간 중 국내 일반은행의 대출자산증가율은 동 기간 중 명목GDP성장률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둘째, 개별 은행의 특성에 따른 전략적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산의 운용행태에 있어 상품별·시점별로 균집행동의 패턴이 관측되었다. 2002~2003년 가계대출, 2004~2005년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대출의 쏠림현상이 나타났으며, 은행별로 부동산 담보대출과 국내자산에 대한 편중현상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국내은행도 경기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경기순응적인 레버리지 행태를 보였으며, 이러한 대출확대전략의 재원조달이 시장성 자금 및 도매자금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자금조달구조의 취약성이 증대되었다. 2006년 이후 핵심 저금리성 예금이 이탈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CD, 금융채 등 시장성 자금과 기업, 연·기금, 외국은행 등 도매자금의 조달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자금이 대출에 사용되어 예대율이 크게 높아졌다. 넷째, 도매자금에 대한 의존성 증대와 더불어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노출도 커졌다. 2006~2007년에 해외증권과 외화비거주자 차입금, 해외 본지점계정 등 대외채무가 빠르게 늘어났으나, 2008년 들어 해외 금융채 발행이 중단되고 대외채무가 대거 회수되는 극심한 외화유동성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섯째, 이러한 대출 중심의 성장전략은 이자이익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익구조의 왜곡현상을 야기하였다.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는 비이자이익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

을 뿐 아니라 그 업무기반 또한 매우 취약하다. 비이자이익은 단순 수수료업무에 크게 의존하고, IB관련 업무이익, 벤처투자 관련이익, 유동화 관련이익 등은 거의 미미한 실정이며, 수수료이익의 경우에도 펀드와 보험상품 등 판매대리업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은행들의 보다 객관적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제은행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대형화, 대출확대, 수익다각화 등 다양한 경영전략들이 은행의 수익성과 안정성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대형화는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규모의 비선형적 효과가 존재한다. 즉, 자산규모가 작은 수준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도산위험이 낮아지지만,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다시 낮아지며 도산위험도 다시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수익성과 도산위험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의 특성 및 국가별 여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최적 은행규모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따라서 은행의 대형화 전략은 이러한 최적 규모를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출확대전략과 관련하여 자산 대비 대출비중이 높아지는 경우 은행의 수익성은 높아지지만 이러한 대출비중효과를 통제한 후 대출증가율의 상승은 은행 수익성과 안정성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대출확대전략의 부정적 효과는 시장집중도가 낮을수록, 즉 시장이 더욱 경쟁적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의 빠른 대출확대가 은행의 위험을 높이며 수익성도 저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비이자이익의 확대를 통한 수익다각화 전략은 은행의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반면, 수익의 변동성과 은행 도산위험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은행의 취약성과 국제은행 자료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은행산업이 새로운 경영전략을 모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의 자생적 성장을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은 대형화 전략에 대해 철저한 전략적 접근을 하여야 하며, 자산 한 단위의 증대나 거래체결에 소요되는 영업비용뿐 아니라 규제비용까지도 면밀히 파악하여 최적의 성장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증분석 결과와 현재 국내 금융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생적 성장전략보다는 은행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 전략이 보다 현

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은행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복구조가 심한 은행 간 결합보다는 보완적인 은행 간의 결합이 보다 바람직하며, 단일한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여 시장을 압도하는 형태보다는 적어도 두 개의 대형 은행이 존재하여 상호 결합하는 구조가 시스템 위험의 완화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겸업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통해 비이자부문의 수익비중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은행의 겸업화를 통한 비은행업무 확대는 수익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수익의 변동성 확대와 이에 따른 은행 도산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개별 은행의 다양한 재무적·비재무적 특성과 위험관리 및 인력의 전문성, 그리고 국내 거시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예상수익과 위험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고려한 수익다각화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국내은행은 비이자이익 업무의 전반적인 확대와 더불어 자산관리 수수료 등 수수료수익의 다변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은행의 투자은행 업무는 본체에서의 독자적인 투자은행 업무 내부 겸업방식보다는 지주회사그룹 내 기업금융 및 투자은행 서비스 역량의 강화와 시너지효과의 실현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은행 업무와 연계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구조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규제강화의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은행의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부터 은행의 저원가성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넷째, 잠재력 있는 해외시장 진출 및 비금융업과의 결합가능성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해외 금융회사와의 관계형성에 주력하고 금융업이 유통 및 통신업과 결합하는 융합모형의 개발을 통해 수익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은행은 내부 경영관리체제의 강화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리스크 관리체계 및 내부 통제시스템의 강화는 물론 다양한 규제비용이 영업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제에 수익관리 및 비용관리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부 록

〈부표 1〉 변수 간 상관계수: 연도별 표본

	roal	gr_loan	lnasset	eq_asset	loan_asset	niir	gr_gdp	rrate	infl_cpi
roal	1.000								
gr_loan	0.025*	1.000							
lnasset	-0.010*	0.037*	1.000*						
eq_asset	0.119*	-0.022*	-0.275*	1.000					
loan_asset	-0.022*	0.124*	0.071*	-0.242*	1.000				
niir	0.086*	0.029*	0.271*	0.015*	-0.148*	1.000			
gr_gdp	0.045*	0.085*	0.104*	0.000	-0.035*	0.097*	1.000		
rrate	-0.007	0.042*	0.073*	0.087*	-0.089*	0.0248	0.012*	1.000	
infl_cpi	0.032*	0.041*	0.025*	0.015*	-0.051*	0.010*	-0.028*	-0.062*	1.000
mktcap_gdp	-0.013*	-0.069*	-0.378*	0.008*	0.148*	-0.269*	-0.039*	-0.220*	-0.090*

〈부표 2〉 변수 간 상관계수: 평균표본

	mean_roa	sd_roa	zscore	mgr_loan	mlnasset	meq_asset	mloan_asset
mean_roa	1.000						
sd_roa	0.061*	1.000					
z-score	0.045*	-0.327*	1.000				
mgr_loan	0.070*	0.087*	-0.176*	1.000			
mlnasset	0.029*	0.065*	-0.111*	0.143*	1.000		
meq_asset	0.244*	0.361*	0.109*	0.019	-0.237*	1.000	
mloan_asset	-0.051*	-0.115*	-0.057*	0.147*	0.083*	-0.253*	1.000
mniir	0.163*	0.294*	-0.195*	0.054*	0.322*	0.069*	-0.166*
mgr_gdp	0.071*	0.070*	-0.095*	0.136*	0.201*	0.021	-0.143*
mrrate	0.058*	0.164*	-0.106*	0.066*	0.143*	0.104*	-0.110*
minfl_cpi	0.142*	0.161*	-0.075*	0.102*	0.100*	0.075*	-0.140*
mmktcap_gdp	-0.072*	-0.351*	0.230*	-0.175*	-0.400*	-0.050*	0.193*

	mniir	mgr_gdp	mrrate	minfl_cpi
mniir	1.000			
mgr_gdp	0.235*	1.000		
mrrate	0.047*	0.117*	1.000	
minfl_cpi	0.056*	0.016	0.541*	1.000
mmktcap_gdp	-0.351*	-0.422*	-0.435*	-0.317*

참 고 문 헌

- 강종구, “금융환경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258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6.
- _____, “은행대출의 쏠림현상에 관한 실증분석,” 『경제분석』 제16권 제1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10, 1~36.
- 구본성, “국내은행의 성장성과 국제화 방향,” 『정책조사보고서』 2008-08, 한국금융연구원, 2008a.
- _____, “은행채 스프레드와 수신구조,” 『주간금융브리프』 제17권 제42호, 한국금융연구원, 2008b.
- 김병덕·함준호, “규제감독시스템의 개선방향,” 한국금융학회 창립 20주년 금융정책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9. 5.
- 김현욱, “은행의 대형화와 은행부실 위험,”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2003. 1.
- 배병호, “국내은행의 비은행업무 확대가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6.6, 28~50.
- 서병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조사보고서』 2009-06, 한국금융연구원, 2009.
- _____,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과 국내 파급효과,” 『주간금융브리프』 제19권 제29호, 한국금융연구원, 2010.
- 서정호·박정수·신현한,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수신고객구조가 은행위험에 미치는 영향,” 『금융연구』 제24권 제1호, 2010, 99~129.
- 오완근·김형식·송홍선, “대형화·겸업화가 은행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연구』, 제8권 제1호, 2007, 1~25.
- 이병윤, “우리나라 은행 대형화와 기업대출자금의 배분,” 『금융조사보고서』 2009-08, 한국금융연구원, 2009.
- 정윤미, “은행의 CIB 겸업에 대한 국제 논의 및 국내은행의 향후 진로,” 『조사연구 Review』 제29호, 금융감독원, 2010.
- 정형권,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305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7.
- 정형권·강종구, “은행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이 은행 효율성에 미친 영

- 향,”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진단과 과제』, 한국은행, 2008, 59~83.
- 최호상, “은행산업의 구조변화와 경쟁도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18권, 2007, 121~155.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정책조사보고서』 2010-03, 2010.
- 한국금융연구원, 『2009년 KIF 금융백서』, 2010. 4.
- Adrian, Tobias and Hyun Song Shin, “Liquidity,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Cycles, Current Issues in Economics and Financ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Vol. 14, No. 1, 2008.
- Ahn, Sanghoon, Joon-Ho Hahm, and Joon-Kyung Kim, “External Finance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Firm Level Evidence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Korea Development Review*, Vol. 30, No. 2, 2008, 177~209.
- Akhavein, J. D., A. N. Berger, and D. B. Humphrey, “The Effects of Bank Megamergers on Efficiency and Prices: Evidence from the Profit Function,”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12, 1997, 95~139.
- Allen, F. and D. Gale, *Comparing Financial Systems*, Cambridge, MA: MIT Press, 2000.
- Berger, A. N., L. J. Mester, and P. E. Strahan, “The Consolid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Causes,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23, No. 2~4, 1999, 135~194.
- Bikker, J. A. and K. Haaf, “Competition, Concentration and their Relationship: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Banking Industry,” mimeo Presented at the EMU Conference on the Financial Structure, Bank Behaviour and Monetary Policy, 2000.
- Boyd, J. H. and D. E. Runkle, “Size and Performance of Banking Firms: Testing the Predictions of Theor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31, No. 1, 1993, 47~67.
- Boyd, J. H. and M. Gertler, “U.S. Commercial Banking: Trends, Cycles and Policy,” in O. J. Blanchard and S. Fischer, eds., *NBER Macroeconomics Annual 1993*,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93.
- Calem, P. S. and G. A. Carlino, “The Concentration/conduct Relationship in Bank Deposit Marke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3, No. 2, 1991,

268~276.

Chamberlain, S. L., "The Effect of Bank Ownership Changes on Subsidiary-level Earnings," in Y. Amihud and G. Miller eds., *Bank Mergers and Acquisitions*,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1998, 137~172.

Claessens, S. and L. Laeven, "What Drives Bank Competition? Some International Evidence," mimeo Presented at the World Bank Conference on Bank Concentration and Competition, World Bank, April 2003.

Craig, B. and J. C. Santos, "The Risk Effect of Bank Acquisitions,"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Economic Review*, Vol. 33, 1997, 25~35.

Demsetz, R. S. and P. E. Strahan, "Diversification, Size, and Risk at Bank Holding Companie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29, No. 3, 1997, 300~313.

De Nicolo, G., "Size, Charter Value and Risk in Bank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mimeo,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September 2000.

De Nicolo, G., P. Bartholomew, J. Zaman, and M. Zephirin, "Bank Consolid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Conglomeration: Trends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Risk," WP/03/15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3.

De Young, R. and T. Rice, "Non-interest Income and Financial Performance at U.S. Commercial Banks," *Financial Review*, Vol. 39, 2004, 101~127.

De Young, R. and K. Roland, "Product Mix and Earnings Volatility at Commercial Banks: Evidence from a Degree of Total Leverage Model,"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Vol. 10, 2001, 54~84.

Hahm, Joon-Ho,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Non-Interest Income Diversification of Commercial Banks in OECD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Vol. 12, No. 1, 2008, 3~32.

Hahm, Joon-Ho and Joon-Kyung Kim, "Risks and Supervisory Challenges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 Korea," *Korea Development Review*, Vol. 28, No. 1, 2006, 145~191.

Hannan, T. H., "Bank Commercial Loan Markets and the Role of Market Structure: Evidence from Surveys of Commercial Bank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5, 1991, 133~149.

- Hughes, J. P. and L. J. Mester, “Bank Capitalization and Cost: Evidence of Scale Economies in Risk Management and Signal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0, No. 2, 1998, 314~325.
- Keeley, M., “Deposit Insurance, Risk and Market Power in Banking,”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0, 1990, 1183~2000.
- Liu, Xuewen and Antonio S. Mello, “The Capital Structur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Liquidity Crises,” Imperial College Business School/ Wisconsin School of Business, Working Paper, October 2009.
- Shin, Hyun Song, “Reflections on Northern Rock: The Bank Run That Herald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3, No. 1, 2009, 101~119.
- Smith, R., C. Staikouras, and G. Wood, “Non-interest Income and Total Income Stability,” Working Paper No. 198, Bank of England, 2003.
- Stiroh, K. J., “Diversification in Banking: Is Noninterest Income the Answer?”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26, No. 5, 2004a, 854~882.
- _____, “Do Community Banks Benefit from Diversification?”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Vol. 25, No. 2~3, 2004b, 135~160.
- Valverde, S. C. and F. R. Fernandez, “The Determinants of Bank Margins in European Banking,”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31, 2007, 2043~2063.
- Yoshino, Naoyuki, “Optimal Capital Requirement and the Behavior of the Bank,” Presented at the 2010 KMFA/KIF Symposium *Outlook for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in the Era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Reform*, 2010.

[Abstrac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Business Strategies of Korean Commercial Banks: Evaluation and Implications

Jungsoo Park* · Jeong Ho Suh** · Joon-Ho Hahm***

This paper derives strategic implications for Korean commercial banks by critically evaluating bank business behaviors since 2000 and by empirically analysing micro data of 8,404 world-wide banks. The business strategies of Korean banks can be characterized by the rapid loan growth with a strong asset size orientation, the herd behavior across banks in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and the procyclical leverage financed by non-core and wholesale funding, which led to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Korean banks at the onset of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Our investigation of the international bank dataset yields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an expansion of bank asset size raises bank profitability and lowers earnings variability. However, we find that this positive scale effect is not linear in that an excessive increase in bank assets leads to lower profitability and higher bankruptcy risk.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re may exist an optimal bank size reflecting the state of banking industr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ch nation.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loan to asset ratio, an acceleration of loan growth rate leads to significant negative impacts on bank profitability and risk, and these negative impacts are stronger in a more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Hence, a pursuit of rapid organic growth by aggressive credit expansion may lead to deteriorations in longer-term profit capacity of banks, especially when banks show herd behaviors in saturated markets. Third, an expansion of non-interest income businesses raises bank profitability as well as bankruptcy risk, which suggests that an optimal level of income diversification must be achieved by carefully selecting non-bank businesses reflecting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characteristics as well

* Co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 Tel: (02) 705-8697, E-mail: jspark@sogang.ac.kr

** Coauth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Finance, Tel: (02) 3705-6348, E-mail: jhsuh@kif.re.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Tel: (02) 2123-4210, E-mail: jhahm@yonsei.ac.kr

as risk management capacity of respective banks.

Keywords: commercial bank business strategy, interest and non-interest income, consolidation, diversification

JEL Classification: G1, G2, N2

— |

| —

— |

| —